■ ■ IDI연구보고서 2013-13

인천광역시 문예회관의 문화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

Policies for Reinforcing Cultural Publicness of Arts-Centers in Incheon

김 창 수

인천발전연구원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연구책임	● 김창수 / 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연 구 원	● 김준호 / 인천도시인문학센터 전문연구원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문화정책 논의에서 문화공공성의 실현방안이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음. 이는 문화의 공공적 역할과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관련된 것으로, 문화예술이 개인의 심미적 취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적 권리에 속하며 경제적 자원 중의 하나라고 보기 시작한 것임.

○ 문화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 추진방향에서도 드러남.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문화활동과 문화향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문화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민선5기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기본계획'(2011)에서 문화공공성지표의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음.

○ 현재 인천 시민들의 문화향유 수준은 매우 낮은 편으로, '2012 인천문화지표조사'에 따르면 95.9%의 시민이 가장 초보적 형태의 문화예술 창작이나 발표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실제적인 문화소외계층이 예상외로 광범위하다는 증거임.

○ 문화기반시설 중 예산규모와 지역에 미치는 문화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시설유형은 문예회관임. 현재 국공립 문예회관의 상당수가 효율성과 수익성을 운영의 지표로 삼고 있어, 공공성을 훼손하는 등 시설 본연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광역시 문예회관이 문화공공성의 핵심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확인할 수 있는 문화공공성 지표를 설정하는 것임.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내용

- 문화공공성의 개념과 핵심가치 재정립

- 문예회관의 문화공공성 평가지표 설정
- 인천광역시 문예회관의 문화공공성 구현수준 평가
- 인천광역시 문예회관의 문화공공성 제고방안 제시

○ 연구조사 방법

- 문헌조사
- 관계자/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
- 현장조사
- 문예회관 직원 및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3. 연구결과 요약

1) 문화공공성의 개념 및 핵심가치

○ 문화공공성의 개념은 모든 시민이 계층, 지역, 성별, 학력, 신체조건, 소속 집단, 종교, 인종 등과 같은 차이와 무관하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문화권(文化權)을 전제로 함.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공공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을 비롯한 각종 문화 활동과 자원에 쉽게 접근하여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문화공공성이란 '사회구성원 누구나 편리하고 자유롭게 문화자원과 시설에 접근하여 문화향유의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창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정의될 수 있음.

○ 문화공공성은 개방성, 평등성, 다양성, 지속성 등 4가지 핵심가치로 구성됨.

- 개방성 : 시민들이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시설의 운영 및 정책수립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
- 평등성 : 모든 시민이 성별, 나이, 인종, 계급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문화향유의 기회와 권리를 균등하게 부여받을 수 있는 환경
- 다양성 : 시민들이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를 생산하고 가치를 표현하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가치, 이념, 관습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순종을 강요받지 않고, 국내의 타 지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문화들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

- 지속성 : 인력, 예산 등의 측면에서 문예회관의 안정적 운영이 보장된 환경

2)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의 설정

○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는 다음의 4가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설정함.

- 문화공공성의 핵심가치를 반영한 지표
- 문예회관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지표
- 조사항목을 최소화 한 지표
- 조사 및 평가 방법을 단순화 한 지표

○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는 '기본지표'와 '보조지표(설문평가지표, 전문가평가지표)'로 구성되는데 이 중 핵심은 기본지표로, 설문평가지표와 전문가평가지표는 기본지표를 보완하는 역할로 설정함.

<표 1>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의 체계

구 분		세부지표 수	조사방법
기본지표		22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보조지표	설문평가지표	24 (시민대상 10, 직원대상 14)	시민 및 직원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평가지표	5	사업의 내용 및 구성에 대한 관련전문가의 평가
계		51	·

○ 기본지표는 4개의 평가영역(개방성, 평등성, 다양성, 지속성), 11개의 평가지표, 22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됨.

<표 2>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 : 기본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세부지표		배점
개방성	사업계획 수립과정의 개방성	운영위원회에 일반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비율 (문화예술인 및 전문가 제외)		2
		시민 및 시민단체나 지역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토론회의 개최 여부		2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	목표로 설정한 전체 시설이용자 수 대비 달성비율		2
	시민만족도조사의 실시 및 반영	시설이용 만족도조사 실시여부 및 결과 반영여부		2
		사업별 만족도조사 실시여부 및 결과 반영여부		2
	사업 접근성	정보지/소식지/뉴스레터 발행 여부		2
		홈페이지 활성화 여부	전년대비 홈페이지 방문객 수의 증감비율	2
		SNS 활성화 여부	전년대비 시민 게시글 수의 증감비율	2
			업데이트 주기	3
	계			19
평등성	시설이용의 형평성	소수자 배려시설의 구비기준 충족여부		5
	문화향유 기회의 형평성	전체사업대비 저소득층 대상 사업의 비율		2
		전체사업대비 문화소외지역주민 대상 사업의 비율		2
		전체사업대비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대상 사업의 비율		2
		전체사업대비 기타 문화적 약자 대상 사업의 비율		2
	계			13
다양성	문화사업의 다양성	해외문화교류사업의 문화권별 유형 개수		2
		공연의 장르별 유형 개수		2
		전시의 장르별 유형 개수		2
		전체사업대비 시민참여예술사업의 비율		2
	지역정체성과 문화전통의 확립	전체사업대비 지역정체성과 문화전통 계승 및 재창조 사업의 비율		3
	계			11
지속성	운영예산의 안정성	전년대비 시설 총 운영예산의 증감비율(시설비 제외)		5
	전문성 제고	전체 임직원 수 대비 문화전문인력의 비율		3
	지역성 제고	전체 임직원 수 대비 지역에서 양성된 문화전문인력의 비율		2
	계			10
총 계				53

○ 설문평가지표는 시민대상 설문평가지표와 직원대상 설문평가지표로 구분됨.

<표 3>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 : 설문평가지표

대상	평가지표	평 가 항 목
시민	시설의 접근성	교통이 편리한지 여부
		건물 외관이 편안한 느낌을 주는지 여부
		안내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 여부
	사업의 접근성	프로그램의 수준이 적절한지 여부
		프로그램 진행시간이 시민들의 여가시간과 부합하는지 여부
		관람료가 적절한지 여부
		프로그램 관련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지 여부
	프로그램의 다양성	시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 시민들이 관람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지 여부
	사업의 지속성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여부
		직원들의 태도가 친절한지 여부
직원	문화향유의 평등성	노약자, 어린이, 여성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한지 여부
		외국인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한지 여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한지 여부
		저소득층을 위한 충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시설운영의 개방성 및 공정성	문화사업 관련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는지 여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조직 내부에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임직원 간 토론의 결과가 시설운영에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문화사업의 다양성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
	사업의 지속성	문화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시설의 운영목표를 이해 및 공감하고 있는지 여부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여부

○ 전문가평가지표는 총 5개의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됨.

<표 4> 문예회관문화공공성평가지표 : 전문가평가지표

평가지표	평 가 항 목
사업계획 수립과정의 개방성	운영위원회에 참여 중인 시민들의 구성이 적절한가?
시민만족도조사 결과의 반영	시민만족도조사 결과를 사업기획 및 시설운영 단계에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 적절한가?
문화향유 기회의 형평성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의 내용과 구성이 적절한가?
문화사업의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의 내용과 구성이 적절한가?
지역정체성과 문화전통의 확립	지역정체성과 문화전통 계승 및 재창조 사업의 내용이 적절한가?

3) 대상시설별 지표예비조사 결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다양성'의 구현수준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등성'과 '지속성'의 구현정도는 다른 영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문화공공성의 '개방성' 구현과 관련하여, ①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고, ②'시민대상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③예술회관의 공연·전시 정보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평등성' 구현과 관련하여 소수자 배려시설을 법적 기준에 준하여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남. 또 '찾아가는 공연/연주회'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수자 대상 사업의 상당수가 문화적 소외계층과 무관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 '다양성'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사업 대비 '시민참여예술사업'의 비율은 단계적으로 높여갈 필요가 있음.
- '지속성' 구현과 관련하여 2012년도 기준 예산운영은 보통 수준이었으나, '문화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부평아트센터

- ‘개방성’, ‘다양성’, ‘지속성’ 측면은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등성’ 항목은 다른 영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개방성’ 구현과 관련하여 ‘전체 시설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아트센터의 공연·전시 정보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평등성’ 구현과 관련하여 ‘전체사업 대비 소수자 대상 사업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문화소외지역주민 대상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시의 장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속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운영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남.

4) 인천광역시 문예회관의 문화공공성 제고방안

○ 개방성 제고방안

-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입지할 뿐만 아니라, 건물의 외관도 조형성을 갖추어 심미적 감상가치를 지녀야 함.
- 시설을 처음 방문하는 관람객이나 외국인들도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잘 갖추어야 함.
- 일반시민의 시설운영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함.
- 지역공동체와 협력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체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 및 주민밀착 경영이 필요함.
- 홈페이지나 SNS와 같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민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문예회관의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여야 함.

○ 평등성 제고방안

- 시민들이 소득수준이나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등과 같은 소수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해야 함.

- 시민들의 사회적, 교육적 계층, 그리고 예술적 소양을 고려한 맞춤형 입장권 정책을 구사하여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다양성 제고방안

- 문화유산은 과거의 문화이지만 문화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공공 문예회관은 지역문화유산을 새로운 컨텐츠로 창조하는 실험실이 되어야 하며, 지역문화계의 실험을 지원하는 기관이 되어야 함.
- 민간예술단체나 상업 공연장이 시도하기 힘든 새롭고 도전적인 형식과 내용의 실험 예술의 발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함.
- 국내의 지역과 지역, 나아가 외국 문화와의 교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함.

○ 지속성 제고방안

- 지역 전문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지방정부는 문예회관의 예산과 인력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점진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투자하며, 문예회관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4. 정책제언

○ 인천시의 문화정책을 ‘문화공공성의 구현’ 중심으로 재구조화 할 것을 제안함.

○ 인천의 문예회관이 문화공공성의 주요가치를 시설의 미션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함.

○ 문화공공성지표의 개발목적에 대하여 문화기반시설, 문화재단, 인천시 등을 비롯한 문화주체들 간 공론화를 제안함.

○ 문화공공성지표조사의 주기적 실시를 제안함.

○ 문화평등성과 다양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수개발을 제안함.

- 목 차 -

제1장 연구개요 ·····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5
1. 연구 내용 ····· 5
2. 연구조사 방법 ····· 5
3. 구성 및 흐름 ····· 6

제2장 문화공공성 개념의 재정립 ····· **11**
제1절 문화공공성 관련논의의 흐름 및 쟁점 ····· 11
1. 관련논의의 흐름 ····· 11
2. 주요쟁점 ····· 12
제2절 문화공공성의 개념 및 핵심가치 설정 ····· 14
1. 문화공공성의 개념 ····· 14
2. 문화공공성의 핵심가치 ····· 15

제3장 문예회관의 문화공공성 평가지표 설정 ····· **23**
제1절 지표설정의 원칙 및 과정 ····· 23
1. 설정원칙 ····· 23
2. 설정과정 ····· 24
제2절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 설정 ····· 25
1.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초안 구성 ····· 25
2.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초안 수정 ····· 33
3.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 ····· 36

제4장 인천광역시 문예회관의 문화공공성 평가 ····· 49
제1절 인천광역시 문예회관 현황 ····· 49
제2절 대상시설별 지표예비조사 결과 ····· 54
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55
2. 부평아트센터 ····· 65
제3절 시사점 :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 조정 ····· 73

제5장 인천광역시 문예회관의 문화공공성 제고방안 ····· 77
제1절 개방성 제고방안 ····· 77
1. 기본방향 ····· 77
2.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79
3. 부평아트센터 ····· 80
제2절 평등성 제고방안 ····· 81
1. 기본방향 ····· 81
2.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81
3. 부평아트센터 ····· 82
제3절 다양성 제고방안 ····· 84
1. 기본방향 ····· 84
2.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85
3. 부평아트센터 ····· 85
제4절 지속성 제고방안 ····· 86
1. 기본방향 ····· 86
2.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87
3. 부평아트센터 ····· 8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91
제1절 결론 ····· 91
제2절 정책제언 ····· 95

〔참고문헌〕 ····· 99
〔부록〕 ····· 103

- 표 목 차 -

<표 2-1> 문화공공성의 핵심가치와 「문화헌장」 관련조항의 비교 ····· 19

<표 3-1> 2012인천문화공공성지표시안 ····· 26
<표 3-2> 2012인천문화공공성지표시안 평가항목의 재설정 ····· 27
<표 3-3> 2012인천문화공공성지표시안에 의거한 문예회관별 예산 증감비율 평가 ····· 30
<표 3-4> 2012인천문화공공성지표시안의 수정·보완 ····· 30
<표 3-5>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초안 ····· 32
<표 3-6>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초안의 수정·보완 ····· 35
<표 3-7>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의 체계 ····· 37
<표 3-8>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 : 기본지표 ····· 38
<표 3-9>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 : 설문평가지표 ····· 39
<표 3-10> 문예회관문화공공성평가지표 : 전문가평가지표 ····· 40
<표 3-11> '개방성' 영역의 지표별 척도 ····· 42
<표 3-12> '평등성' 영역의 지표별 척도 ····· 43
<표 3-13> '다양성' 영역의 지표별 척도 ····· 45
<표 3-14> '지속성' 영역의 지표별 척도 ····· 46

<표 4-1> 문화기반시설의 종류 ····· 49
<표 4-2> 인천광역시 군·구별 공공도서관 현황(2012년 기준) ····· 50
<표 4-3> 인천광역시 주요 문화기반시설의 증감현황 (2010년~2012년) ····· 50
<표 4-4> 인천광역시 주요 문화기반시설의 군·구별 분포현황 ····· 51
<표 4-5> 인천과 6대 광역시 간 문예회관 평균지표 비교 ····· 53
<표 4-6> 인천 문예회관의 운영주체 및 운영예산 현황 ····· 54
<표 4-7> 문화공공성 조사결과의 백분율값에 따른 평가기준 ····· 55
<표 4-8>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조사결과 ····· 55
<표 4-9>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조사결과 : 개방성 ····· 56
<표 4-10>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정보수집의 용이성 ····· 57
<표 4-1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활성화 현황 ····· 58
<표 4-12>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조사결과 : 평등성 ····· 58
<표 4-13>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소수자 배려시설 구비현황 ····· 59

<표 4-14>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문화적 소수자 대상 사업 추진실적 (2012년 기준) ····· 60
<표 4-15>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조사결과 : 다양성 ····· 61
<표 4-16>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장르별 공연·전시 추진현황 (2012년 기준) ····· 62
<표 4-17>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조사결과 : 지속성 ····· 63
<표 4-18>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세출예산 현황 (2010년~2012년) ····· 63
<표 4-19> 인천광역시 문예회관별 전문인력 현황 ····· 64
<표 4-20> 부평아트센터 조사결과 ····· 66
<표 4-21> 부평아트센터 조사결과 : 개방성 ····· 66
<표 4-22> 부평아트센터의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활성화 현황 ····· 68
<표 4-23> 부평아트센터 조사결과 : 평등성 ····· 68
<표 4-24> 부평아트센터의 소수자 배려시설 구비현황 ····· 69
<표 4-25> 부평아트센터의 문화적 소수자 대상 사업 추진실적 ····· 70
<표 4-26> 부평아트센터 조사결과 : 다양성 ····· 70
<표 4-27> 부평아트센터의 장르별 공연·전시 추진현황 ····· 71
<표 4-28> 부평아트센터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결과 ····· 71
<표 4-29> 부평아트센터 조사결과 : 지속성 ····· 72
<표 4-30> 부평아트센터의 운영예산 현황 (2011년/2012년) ····· 72
<표 4-31>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 조정 ····· 74

<표 5-1> 시설별 개방성 제고방안 요약표 ····· 81
<표 5-2> 시설별 평등성 제고방안 요약표 ····· 83
<표 5-3> 시설별 다양성 제고방안 요약표 ····· 86
<표 5-4> 시설별 지속성 제고방안 요약표 ····· 88

<표 6-1> 시설별 문화공공성 제고방안 ····· 93

- 그 림 목 차 -

<그림 1-1> 연구의 흐름 ····· 8

<그림 2-1> 문화공공성의 구성요소 ····· 15

<그림 3-1>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 설정과정 ····· 25

<그림 4-1> 군·구별 인구 대비 문예회관 현황 ····· 52
<그림 4-2>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직원대상설문조사결과:소수자의시설이용편의성 ····· 60
<그림 4-3>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직원대상설문조사결과:다양성을 위한 과제 ····· 62

<그림 5-1> 일본신국립극장 ····· 77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최근 문화정책 논의에서 공공성(publicness)의 실현방안이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 배경 중 하나는 문화의 공공적 역할과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관련된 것으로써, 문화예술이 개인의 심미적 취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적 권리에 속하며 경제적 자원 중의 하나라고 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문화의 공공적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는 작업과 문화현장의 과제인 문화소외 현상의 구체적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문화 분야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추진방향에서도 잘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재정 확충, 문화향유수준 제고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문화기본법」에는 국민의 문화활동과 문화향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는 역할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이는 문화적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 및 향유 평등권을 보장하는 관련 법률과 정책의 근거로 기능할 수 있다.

「문화헌장」이 문화발전의 원칙을 선언적 수준에서 천명하였다면 「문화기본법」은 실천적으로 규정될 것인데, 최저 임금제와 같이 국민들이 누려야 할 최소의 문화향유수준, 곧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저문화생활의 기준에 관한 논의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문화기본법」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다양성보호증진법」,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메세나법)과 같은 연계법의 내용 역시 국민들의 문화향유 수준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문화기반시설의 공공성 제고방안에 대한 논의는 한층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민선5기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기본계획'(2011)에서 문화공공성 지표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2 인천문화예술조사'(인천문화재단)에서 '2012인천문화공공성지표시안'을 개발한 바 있다. 이처럼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공공성의 실현'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곧 경제중심주의적 발전이 아닌 인간중심주의적 발전, 즉 문화적 가치에 바탕을 둔 성장모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일정하게 형성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인천 시민들의 문화향유 수준은 매우 낮다. '2012 인천문화지표조사'에서 인천시민의 33.7%는 문화예술행사를 전혀 관람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인천시민의 66.3%가 1회 이상의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람하였다고 답변한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화예술행사에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축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엄밀한 문화향수비율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95.9%의 시민이 가장 초보적 형태의 문화예술 창작이나 발표 경험도 없다는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실제적인 문화소외계층이 예상외로 광범위하다는 증거로서, 문화예술 활동은 여전히 소수만의 전유물이며 공공성의 실현과는 더욱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국공립 문예회관의 상당수는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절감 및 재정자립도를 중심으로 설정된 운영방향 때문에 공공성을 훼손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역대 정부가 공공문화시설 확충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2011년 12월 기준 전국의 문화기반시설은 공공도서관 786개소, 등록박물관과 미술관 848개소, 문예회관 209개소 등으로 선진국 기준에 근접하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의 시설이 운용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거나, 프로그램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공연·전시 행사가 함께 추진되는 문예회관의 경우 문화기반시설 중 예산규모와 지역에 미치는 문화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시설유형이기 때문에 더욱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정부는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시설관리기관에 위탁하거나 민영화하는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재정자립도 제고를 앞세운 시설운영은 전문성이나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민영화하지 않은 문예회관의 경우도 상당수가 '효율성과 수익성'을 운영의 지표로 삼고 있어, 공공문화기반시설 본연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광역시 문예회관이 시민 문화향유와 문화활동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확인할 수 있는 문화공공성지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지표 설정은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예회관 운영주체와 정책 기관들이 문화공공성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그 실현 방안에 대한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보고서는 '인천광역시 문예회관의 문화공공성 제고방안 수립'이라는 연구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①문화공공성의 개념과 핵심가치를 재정립하고, ②문예회관의 문화공공성 평가지표를 설정하며, ③인천광역시 문예회관의 문화공공성 구현수준을 평가한 뒤, 이를 토대로 ④인천 문예회관의 문화공공성 제고에 필요한 인천시 차원의 정책 개선방향과 해당시설의 운영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구체적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인천광역시의 대표적 문예회관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기초자치단체 문예회관인 '부평아트센터'를 각각 중점 검토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 연구조사 방법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문예회관의 문화공공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문화공공성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인천광역시 문예회관의 문화공공성 구현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참고문헌으로는 문화공공성 관련 선행연구 자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부평아트센터의 운영실태 관련 협조자료 등이 있다.

둘째, 문예회관의 문화공공성지표를 설정하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와 인천광역시 행정기관 및 문화기반시설의 직원을 대상으로 자문회의와 인터뷰를 각각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는 관련전문가 4명을 위촉하여 2013년 6월 18일과 7월 16일 양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직원 대상 1차 인터뷰는 2013년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인천광역시청,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부평아트센터, 인천시립박물관 등 6개 기관 및 시설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차 인터뷰는 2013년 7월 16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부평아트센터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셋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부평아트센터의 문화공공성 구현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각 시설의 직원과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3년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1:1 개별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시민 대상 설문조사의 경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한 시민 200명과 부평아트센터를 방문한 시민 200명을 각각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직원 대상 설문조사의 경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임직원 38명과 부평아트센터 임직원 17명을 각각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결과 유효표본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시민표본 200개, 직원표본 20개로 나타났으며, 부평아트센터의 경우 시민표본 200개, 직원표본 12개로 나타났다.

3. 구성 및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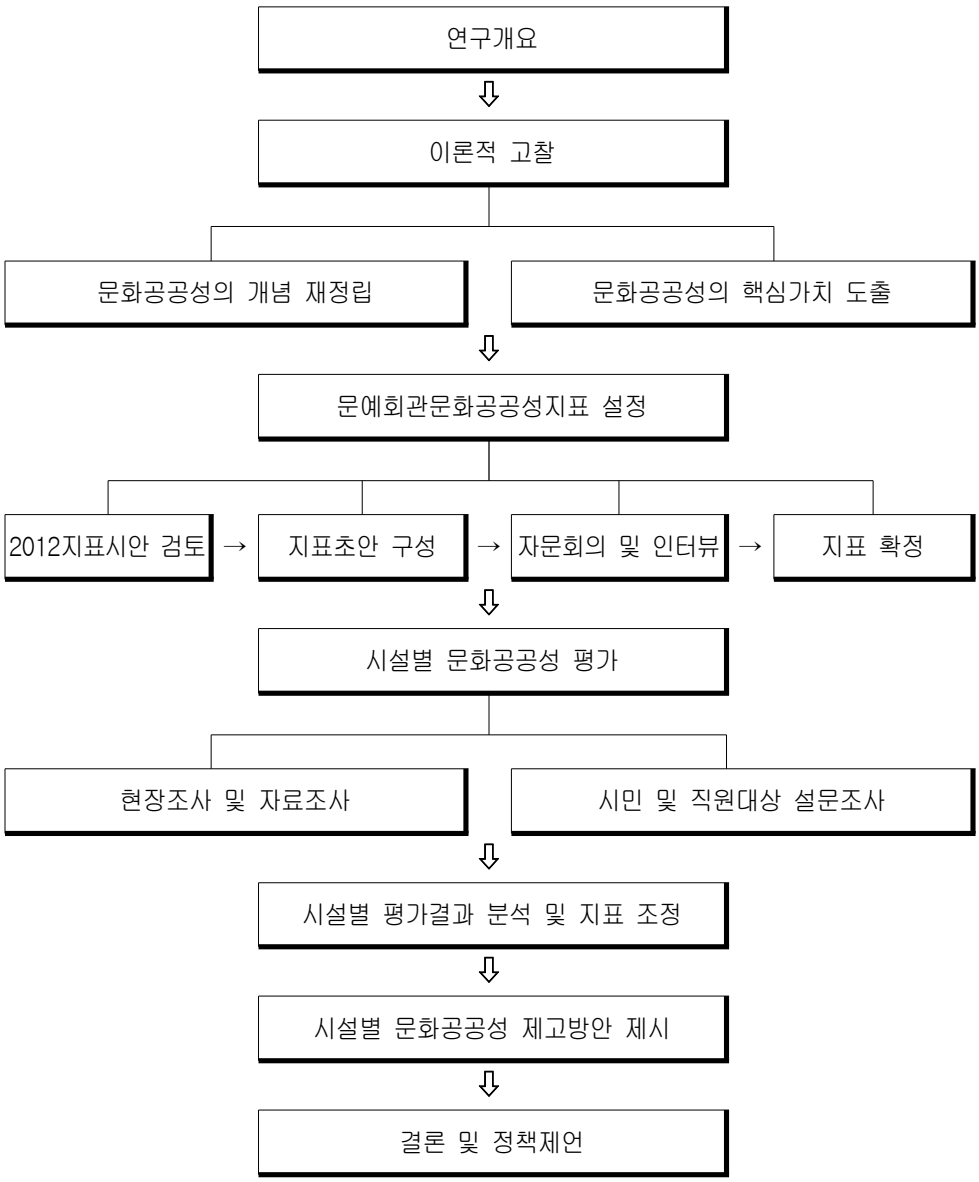
제2장에서는 문화공공성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공공성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문화공공성의 핵심가치 및 구성요소를 재정립하였다.

제3장에서는 문예회관의 문화공공성 평가지표를 구성하였다. 먼저 지표설정의 원칙과 과정을 제시하였으며, 2012인천문화공공성지표시안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초안'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전문가와 문화시설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초안을 수정·보완함으로써 평가지표를 확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 문예회관의 문화공공성 구현수준을 조사하였다.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인천의 문예회관 현황을 살펴보았고, 이후 대상시설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부평아트센터의 문화공공성 구현수준을 각각 평가·분석하였다. 또한 시설별 지표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였다.

제5장에서는 인천광역시 문예회관의 문화공공성 제고를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한 뒤, 이를 토대로 대상시설별 제고방안을 수립하였다.

제6장은 결론 및 정책제언으로, 문예회관의 문화공공성 제고방안,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의 활용방안, 인천광역시 문화공공성 관련정책의 추진방안 등을 각각 제시하였다.


연구개요
이론적 고찰
문화공공성의 개념 재정립
문화공공성의 핵심가치 도출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 설정
2012지표시안 검토
지표초안 구성
자문회의 및 인터뷰
지표 확정
시설별 문화공공성 평가
현장조사 및 자료조사
시민 및 직원대상 설문조사
시설별 평가결과 분석 및 지표 조정
시설별 문화공공성 제고방안 제시
결론 및 정책제언

<그림 1-1> 연구의 흐름

제2장

문화공공성 개념의 재정립

제1절 문화공공성 관련논의의 흐름 및 쟁점

제2절 문화공공성의 개념 및 핵심가치 설정

제2장 문화공공성 개념의 재정립

제1절 문화공공성 관련논의의 흐름 및 쟁점

1. 관련논의의 흐름

국내에서 문화공공성 정책 논의는 최근에 본격화 되었다.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문화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문화향유 수준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공공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법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을 시도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공공성 정책을 추진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문화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된 배경 중 하나는 문화활동과 향유에 있어 계층간·지역간 문화적 차별과 소외현상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즉, '문화는 소수계층만의 전유물이 아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식이 사회적으로 형성되었던 것이고, 이는 곧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이어졌다. 국제적으로는 1948년 유네스코가 「세계인권선언」 제27조에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문화적 권리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1966년 유엔은 "규약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한다"(제15조)고 명시한 내용이 포함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채택한 바 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게 문화적 표현을 할 수 있고, 문화 활동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며, 문화적 표현과 활동을 위해 교육 받을 권리, 쾌적하고 문화적인 환경을 누릴 권리, 소수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누릴 권리, 다양한 문화나 문화 활동과 연대할 권리, 문화정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인식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문화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더욱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문화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인간의 기본권 수준으로 상승함에 따라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개인 문화향유화 활동에 대한 공공적 역할 또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도정일(2008)은 현대의 시장자본주의가 문화를 심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왜곡이 결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인문적 가치와 공공영역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공공성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김평수, 2010). 즉 문화 왜곡 문제는 자본주의 시장 자체의 기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을 제기하는 것이며, 이는 문화공공성을 재인식하고 그 실현 방안을 구체화하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문화공공성을 확대할 것을 명문화한 것은 2006년에 제정된 「문화헌장」 제12조 (국가의 책무)이다. 이 조항은 “국가는 「문화헌장」에 천명된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세우고 실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 책무는 구체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공원을 비롯한 공공의 문화기반시설들을 부단히 확충하고 봉사 체제를 강화하여 문화의 공공성과 문화 복지의 수준을 높이고, 시민의 생활환경과 활동 공간을 문화의 관점에서 개선하며 법률과 제도에도 늘 문화적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주요쟁점

문화공공성의 가치에 대한 문제제기 및 문화공공성을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쟁점에 대한 문화정책과 학술 차원에서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쟁점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문화공공성 개념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다. 문화공공성의 가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문화를 공공재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문화활동에는 공공재(public goods)가 갖는 두 가지 특성인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타성(non-excludability)’[1] 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를 공공재로 간주하기엔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이병량, 2011). 관람료와 입장료를 지불해야만 향유할 수 있는 문화생산물의 경우 비경합성과 비배타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에서의 공공재라고 간주하기엔

1) 현진권(2008)에 따르면 ‘비경합성’의 경우 ‘공용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collective consumption goods)’를 의미하는데, 이는 A라는 사람이 특정 소비재를 소비할 때 B가 함께 소비한다 해도 A의 소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뜻한다. 또한 ‘비배타성’은 ‘사람들이 소비하려 해도 막을 수 없는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순수한 공공재를 찾기 힘들다. 교육의 경우도 순수한 공공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원을 투자하여 공공재처럼 제공된다. 오히려 문화는 공공재라는 본질적 특성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여 생산·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현진권, 2008).

문화공공성의 또다른 쟁점은 '문화공공성이 다양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공공성이 특정 이해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함의를 가지는 반면, 권리의 제한이나 인내를 요구하는 집합적인 힘, 개성의 신장을 억누르는 불특정 다수의 압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박신의, 2009). 이러한 우려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일제강점기나 군사정권 시기에 추진했던 국가주의적 문화정책을 돌이켜 보면 일면 수긍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정책이 역설적으로 토착문화와 이주문화를 구분하여 타자화하는 계기로 작동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은 문화공공성 담론이 권력의 도구이자 정치적 구호로 활용될 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적 현상일 뿐, 문화공공성 자체에 내재된 모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요컨대 문화공공성은 다양성으로서의 문화, 즉 '근본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분명히 전제하고 있으며, 다만 누가 어떤 관점과 이해관계 속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양성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점이다.

문화공공성과 관련된 또 다른 쟁점은 '문화공공성의 구현이 시장의 질서를 해치거나 문화적 창작물의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은가'라는 문제제기이다. 공공재로서의 문화예술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문화를 향유하려고만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는 무임승차가 나타날 수 있다(이병량, 2011). 문화공공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문화적 창작물의 가격은 문화 활동이 확대될수록 그 사회적 효용은 커지므로 무상이거나 누구나 쉽게 획득 및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해야 한다. 생산된 문화적 창작물의 사적 권리와 판매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문화상품을 생산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시장을 창조해 민간영역으로 배치시키는 방안과 민간주도를 공공주도로 대체하는 방안을 별도로 추진한 다음 양자를 결합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즉 "민간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적 창작물 중 공공적 가치가 큰 분야를 공적 생산 영역으로 흡수하여 접근의 수월성을 위한 공적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해결가능하다는 것이다(김평수, 2010). 이른바 '공공재의 패러독스'를 문화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시장의 논리'와 '문화의 공공적 가치' 간의 충돌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제2절 문화공공성의 개념 및 핵심가치 설정

1. 문화공공성의 개념

문화공공성(cultural publicness)이 문화 활동의 중요한 가치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그 구성요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문화공공성은 문화예술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공성으로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제기된 용어이다. 이 개념은 현재 다양한 관점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논의의 대상과 주체에 따라 강조점이 다를 수 있다. 문화민주주의적 관점에서는 시민들의 문화정책 참여나 정보 접근권(public access)과 관련되는 개방성이나 접근성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본다. 문화복지론적 관점에서는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대책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 또 문화예술인의 입장에서는 기초예술이나 실험예술에 대한 지원이나 활동여건 개선을 통해 문화 생태계가 다양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가 문화공공성의 개념을 정립하는 장애 요소는 아니다. 각각의 가치들은 비배타적으로 상호연관되면서 문화공공성의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뿐이다. 문화공공성은 고정불변의 가치가 아니라, 입체적이고 풍부한 함의를 지니는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즉, 세계의 문화권역에 따라, 또 국가나 지역, 문화주체나 기관이 처해 있는 문화적 현안이나 과제와 같은 특수성에 따라 문화공공성 개념이 재구성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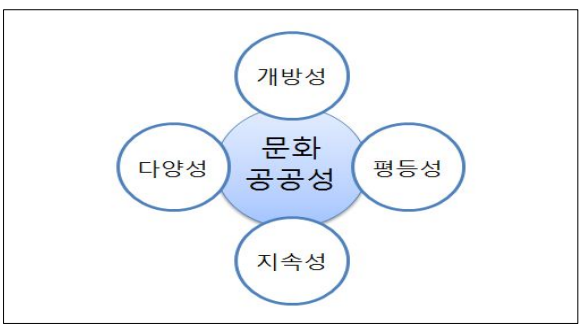
문화공공성의 개념은 모든 시민이 계층, 지역, 성별, 학력, 신체조건, 소속 집단, 종교, 인종 등과 같은 차이와 무관하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문화권(文化權)을 전제로 한다.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공공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을

비롯한 각종 문화 활동과 자원에 쉽게 접근하여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는 세심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며 창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문화공공성이란 '**사회구성원 누구나 편리하고 자유롭게 문화자원과 시설에 접근하여 문화향유의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창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정부 역시 문화공공성을 실현하여 창의적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문화공공성의 핵심가치

'2012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인천문화재단, 2012)는 문화공공성의 주요 가치로 개방성, 안정성, 평등성, 형평성, 다양성, 접근성 등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6가지 가치에서 상호관련이 깊은 요소인 개방성과 접근성, 평등성과 형평성을 통합하여 **개방성**, **평등성**, **다양성**을 주요가치로 선정하고 여기에 **지속성**을 포함하여 4가지 핵심가치로 압축하였다. 개방성과 접근성은 상호전제 관계에 있다. 문화예술시설의 개방성을 강화하면 시민들의 접근성도 높아질 것이고 역으로 접근성이 낮다는 것은 개방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평등성이나 형평성은 모두 공익성(public interest)의 범주와 연관되는 가치이다. 이를 평등성으로 통합한 것은 현재 계층과 지역에 따른 문화소외 현상의 극복이 주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였다.



<그림 2-1> 문화공공성의 구성요소

문화공공성의 첫 번째 핵심가치는 '개방성'(openness)이다. 개방성이란 시민들이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시설의 운영 및 정책수립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이는 향유 가능성 측면에서의 접근성, 과정과 절차라는 측면에서의 공정성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가치이며, 단순히 교통 접근성이나 시설이용의 편리성과 같은 물리적 접근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사업에 대한 접근성, 시설운영에 대한 접근성, 운영 방식과 의식 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시민들이 정보의 제약이나 시·공간적 한계, 경제적·심리적 부담 등으로 인해 문화향유에 곤란을 느끼는 환경이라면 개방성이 담보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개방성은 시설과 프로그램, 조직운영까지 관철되어야 하는 원칙이므로 문화공공성의 여러 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가치는 '평등성'(equality)이다. 평등성은 '모든 시민이 성별, 나이, 인종, 계급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문화향유의 기회와 권리를 균등하게 부여받을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며,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문화헌장에서 제시하는 '창조, 참여, 향유의 평등한 권리(평등성)'와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권(형평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2] 요컨대 '형평성이 보장된 문화적 공유'가 평등성의 핵심 테제라 할 수 있고, 이는 문화소외계층 문제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주요 근거로 기능하게 된다. 평등성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문화향유와 현 활동수준으로 볼 때 문화정책에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원칙이므로 문화공공성에서는 두 번째로 중요한 가치이다.

세 번째 가치는 '다양성'(diversity)이다. 유네스코가 채택한 「문화다양성협약」(2005)에서는 "생태계에서 다양성이 자연에 필요한 것처럼 문화 다양성(cultural diversity)은 교류와 혁신, 창의성의 원천으로 인류에게 필요한 공동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다양성은 시민 생활과 문화 활동을 풍요롭게하는 창조적 자원이며 문화적 자주성과 사회적 다원성을 실현하는 기초가 된다. 다양성은 공공성이나 평등성에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가치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다양성이란 기계적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와

2) 일반적으로 형평성(equity)은 특정한 조건 때문에 차별과 소외, 불평등한 상태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배려라는 뉘앙스를 지니고 있으며, 평등성은 대다수의 일반적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당위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모순되지 않는다. 그런데 다양성의 구현방식은 시설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주민 밀착형 시설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 유형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성화된 시설도 고유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다양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예컨대 극장의 경우 연극공연을 위해 설립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수한 연극을 유치하여 공연함으로써 지역 연극 발전은 물론 문화예술 전체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새로운 형식의 연극을 포함한 다양한 형식의 연극을 공연함으로써 연극 생태계의 토양을 건강하게 만듦으로써 다양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문화헌장」에 천명한 원칙처럼 시민은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를 생산하고 가치를 표현하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가치, 이념, 관습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순종을 강요받지 않아야 하며, 국내의 타 지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문화들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세계의 문화 다양성과 평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다양성은 문화의 특성에서 도출되는 가치이다. 개방성과 평등성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점차 그 비중이 높아져야 할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문화공공성의 마지막 핵심가치는 '지속성'(sustainability)이다. 개방성, 평등성, 다양성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문화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하다. 문화기반시설 자체는 물론 인력, 예산의 변화가 심할 경우 예측가능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우며, 문화시설과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 성과가 축적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운영예산, 그리고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속성의 구현은 문화기반시설의 노력으로만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인력확충이나 예산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과 재정여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2006년 5월에 제정 공표된 대한민국 「문화헌장」은 문화적 권리를 시민의 기본권리로 규정한 제1조(기본권리)부터 국가와 지방정부가 문화헌장에 천명된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할 책무를 규정한 제12조(국가의 책무) 및 제13조(실행의 약속)까지 총13조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헌장」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2. (창조, 참여, 향유의 평등한 권리) 문화적 권리는 시민의 평등한 권리이다. 모든 시민은 계층, 지역, 성별, 학벌, 신체조건, 소속집단, 종교, 인종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삶의 질을 높일 창조적 문화 환경과 여가를 누릴 권리,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을 받을 권리, 평생학습을 추구하여 스스로 기회를 창출할 권리, 모든 분야의 지식정보와 전달매체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자유로운 표현수단을 가질 권리, 자신의 문화적 삶에 영향을 주는 공공정책의 결정과 그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4. (다양성의 원칙) 문화다양성은 개인적·집단적 정체성과 자주성의 토대이고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다원성의 원리이며 평화와 공존의 기틀이다. 시민은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를 생산하고 가치를 표현하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가치, 이념, 관습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순종을 강요받지 않는다. 시민은 나라 안팎의 다양한 문화들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여 세계의 문화다양성과 평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5.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권) 사회적 경제적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누구도 뒤처지거나 억눌리는 일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창조적인 문화환경 속에서 평화, 정의, 상호존중, 이해, 나눔의 정신을 가진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정신적·신체적 장애인은 그 존엄성의 보장과 자립의 촉진,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개인적 발전을 기하는 데 필요한 문화적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
   (다) 불우한 환경의 여성, 노약자, 고아, 독거노인, 혼혈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경제적 소외의 조건 속에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그 생활수준을 개선하고 삶의 품위를 높이기 위한 문화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라) 외국인, 이주민,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언어적, 민족적 소수자와 소수 집단은 이 땅 어디에서나 시민과 동등한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자신들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정체성을 유지하고 할 때에도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마) 성적소수자를 포함한 문화적·종교적 소수자와 소수집단은 자기 의사에 반하는 문화정체성을 강요받지 않는다.

7. (지역문화 창달의 원칙) 지역문화는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활력의 원천이며 지역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정체성의 토대이다. 지역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일은 주민의 자주적 참여와 주민자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지역주민은 자기 고장의 언어, 민속, 전통 같은 고유의 표현형식들을 포함한 자생적 문화자원들을 보존하고 문화발전에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헌장」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정되었다. 문화헌장 제정으로 문화정책의 목표와 문화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고, 개념도 명료해졌다. 헌장 제정과정에서 문화공공성에 대한 이해를 광범위하게 확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통해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진행되기도 했다. 제2절에서 정리한 문화공공성의 핵심 가치를 대한민국 「문화헌장」에서 명시한 관련 조항과 비교해보면 <표 2-1>과 같다.

<표 2-1> 문화공공성의 핵심가치와 「문화헌장」 관련조항의 비교

핵심가치	문화헌장
개방성	제2조 창조, 참여, 향유의 평등한 권리
평등성	제2조 창조, 참여, 향유의 평등한 권리 제5조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권
다양성	제4조 다양성의 원칙 제6조 문화유산보존의 원칙 제7조 지역문화 창달의 원칙
지속성	제12조 국가의 책무 (나) 문화활동지원의 책무 제13조 실행의 약속

문화공공성 개념으로부터 도출된 4개의 핵심가치는 「문화헌장」에서 제시한 총 13개의 조항 중 7개 원칙에 해당되므로 문화공공성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은 「문화헌장」의 주요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는 문화공공성의 가치 구현이 문화기반시설은 물론 모든 문화활동의 가치로 보편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시설과 기관이 목표를 설정하거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향해야할 가치로 활용될 수 있으며, 조직의 사업영역을 구분하는 범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제3장

문예회관의 문화공공성 평가지표 설정

제1절 지표설정의 원칙 및 과정

제2절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 설정

제3장 문예회관의 문화공공성 평가지표 설정

제1절 지표설정의 원칙 및 과정

문예회관의 문화공공성 평가지표(이하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는 문예회관이 '문화공공성의 구현'이라는 비전에 근접한 정도와 노력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설정하는 지표이다. 즉, 문예회관이 문화공공성의 4가지 핵심가치인 개방성, 평등성, 다양성, 지속성을 각각 어느 수준까지 구현하고 있는지 계측하고, 이에 근거하여 문제점을 계량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문예회관이 문화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방향과 대안을 판단하는 근거로 기능하게 되고, 문화공공성 향상을 위한 문화정책 수단개발과 추진의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

1. 설정원칙

본 연구는 다음의 4가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문화공공성의 핵심가치'를 반영한 지표이다. 문예회관의 문화공공성 측면을 평가한다는 것은 곧 앞서 제시했던 4가지 영역(개방성, 평등성, 다양성, 지속성)에 대한 구현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지표는 문화공공성의 4가지 핵심가치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둘째, 문예회관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지표이다. 문화공공성 평가는 평가대상에 따라 지표의 내용과 범주가 달라진다. 이는 대상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인데, 예컨대 전시 중심의 시설과 공연 중심의 시설은 서로 평가항목이 다르다. 본 지표는 '문예회관'이라는 구체적 대상을 설정함으로써 이에 적합한 지표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셋째, 조사항목을 최소화 한 지표이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문화공공성 전 영역을 포괄하는 다양한 세부지표를 설정할 수 있겠지만, 본 지표는 최소의 조사로 문예

회관의 문화공공성 구현정도를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넷째, 조사 및 평가 방법을 단순화 한 지표이다.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가 문예회관 평가의 객관적 척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조사 및 평가 방법을 최대한 단순화함으로써 시설 직원이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본 지표는 문화예술분야의 특성을 감안하되, 객관적 현실분석과 과학적 이해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평가방법을 최대한 단순하게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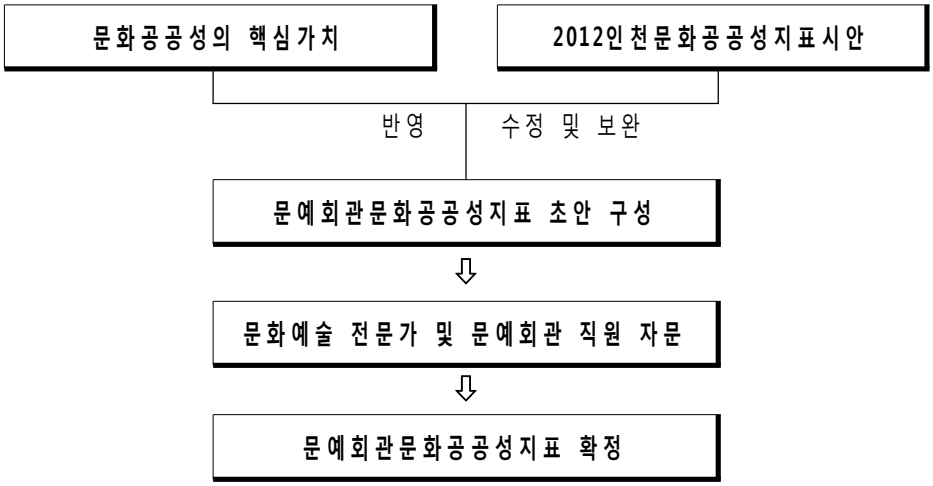
2. 설정과정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4가지 설정원칙에 근거하여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를 구성하되, '2012인천문화공공성지표시안'(이하 '2012지표시안')을 내용적 기초로 하였다. 이는 2012지표시안이 문화공공성 지표를 개발한 최초의 국내사례이기 때문이다.[3)]

먼저 2012지표시안을 문화공공성의 4가지 핵심가치(개방성, 평등성, 다양성, 지속성)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였다. 그 뒤 인천 문예회관의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2012지표시안의 세부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고, 이러한 수정결과를 반영하여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초안'(이하 '2013지표초안')을 구성하였다.

이후 문화예술 전문가와 문예회관 직원을 대상으로 2013지표초안의 지표적정성 및 척도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를 확정하였다.

3) '2012 인천문화지표' 이외의 지표개발 사례를 보면 류정아(2013)의 연구처럼 문화기반시설의 문화공공성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문화공공성에 대한 명시적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또 이정형·김진욱(2005)의 연구처럼 공공성 측면에 입각하여 문화기반시설을 평가했던 사례들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경우 특정 영역(가령 물리적 시설물)에 한정된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그림 3-1>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 설정과정

제2절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 설정

1.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초안 구성

1) 2012인천문화공공성지표시안 분석

2012지표시안은 인천의 문화공공성 수준을 가늠하고자 개발된 지표로, 크게 5개의 관심영역과 6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심영역에는 조직운영, 향유, 지역, 프로그램, 시설 등이 포함되며, 평가항목은 조직운영의 '개방성' 및 '안정성', 향유 '평등성', 지역 '형평성', 프로그램 '다양성', 시설 '접근성' 등으로 구분된다. 아래의 <표 3-1>은 2012지표시안의 지표별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4].

4) 2012지표시안의 평가지표 중 '지역별 문화시설 분포'의 경우 개별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평가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3-1> 2012인천문화공공성지표시안

관심 영역	평가 항목	평가지표	내 용
조직 운영	개방성	조직 운영 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	· 주요의사결정 기구의 개방성 · 시민단체 및 지역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횟수 및 사업유형
	안정성	재정지원 변동추이	· 운영지원 예산 증감 비율
향유	평등성	활동/참여 지원	· 시민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
		저소득층 대상 문화예술활동 지원	· 저소득층 대상 문화예술 지원 사업 및 예산
지역	형평성	문화소외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사업	· 문화소외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사업의 사업유형, 건수, 지원금
프로 그램	다양성	문화교류	· 문화교류 사업 유형, 건수, 예산
		지역정체성과 문화전통	· 지역정체성과 문화 전통 계승 및 재창조 사업의 종류
시설	접근성	문화시설 접근성	· 도보 5분 이내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수단, 거리, 소요시간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 이용자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구비여부 (안내자료/수화/통역/휠체어경사로/엘리베이터/휴게실/수유실)

자료 : '2012인천문화공공성지표시안'(2012)을 연구자가 재구성

2012지표시안은 각 지표의 구체적 평가척도까지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사방법을 제시하여 지역 문화공공성 수준의 체계적·계량적 측정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2지표시안의 '평가항목'과 '조사내용 및 방법'을 수정·보완함으로써 2013지표초안을 구성하였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평가항목[5)]

2012지표시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개의 평가항목(개방성, 안정성, 평등성, 형평성, 다양성, 접근성)을 문화공공성의 4대 핵심가치(개방성, 평등성, 다양성, 지속성)로 압축·재구성하였다. 상호관련이 깊은 형평성과 평등성의 경우 '평등성'으로 통합하였고, 개방성과 접근성은 '개방성'으로 통합하였다. 개념적으로 평등성은 형평성을, 개방성은 접근성을 각각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정성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의 확장된 개념으로 통합하되 '지속성'으로 변경·표기하였다.

<표 3-2> 2012인천문화공공성지표시안 평가항목의 재설정

2012지표시안 평가항목	2013지표초안 평가영역
개방성	개방성
접근성	
평등성	평등성
형평성	
다양성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

(2) 조사내용 및 방법

① 개방성

2012지표시안의 개방성 관련지표는 크게 5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세부지표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개방성'이다. 이는 조직운영의 공개 정도와 주민참여 보장 수준을 평가하고자 설정된 내용으로, '이사회 등의 자료공개 및 일반

5) 2012지표시안의 각 항목이 '관심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내용'으로 구성된 반면, 본 연구의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는 '평가영역', '평가지표', '세부지표'로 이루어진다. 이때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의 '평가영역'은 2012지표시안의 '평가항목'과 대응하는 것으로, 분류체계의 변화가 있었음을 밝힌다.

시민의 참여 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파악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때 '일반시민의 참여가능 여부'는 '일반시민의 참여율'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 구성비율에 따라 서로 다른 배점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참여시민이 지역(혹은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상인지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토론회'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지표로 평가된다. 단 시설의 유형이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의견수렴 방식은 각각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추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문예회관의 경우 연 1회 이상 공청회 개최 시 5점, 2회 이상 개최 시 10점'과 같은 세부기준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시민문화향유의 증진'이다. 인천광역시 내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이 지표를 적용해본 결과, 추진 중인 사업 대부분이 '시민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즉 문예회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실시되기 때문에,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선별해내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본래의 평가취지에 부합하되 실용적인 지표로 대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예로 '시설이용자 수의 증감비율'을 제시할 수 있다.

네 번째 지표는 '시설 접근성'이다.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가능성)은 시민들이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보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단, 평가지표 자체에 '도보 5분 이내'라는 조건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평가척도인 '수단, 거리, 소요시간' 중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수단과 거리'만을 조사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마지막으로 '편의시설의 구비'가 있다. 이용자 편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환경의 쾌적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곧 개방성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다만 2012지표시안에서는 편의시설의 구체적 구비 기준까지 제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정법에 명시된 '의무/권장 설치기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소수자 배려시설은 '법적 의무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법적 권장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법적기준 이외의 배려시설까지 구비하였을 경우'를 각각 나누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일반편의시설'의 경우 소수자 배려시설과 구분하여 새롭게 지표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② 평등성

2012지표시안은 평등성 구현정도에 대한 평가지표로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의 개수'와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의 개수'를 각각 설정하고 있다. 즉 '경제적 소외'와 '공간적 소외'를 예방하기 위한 지표인 것인데, '문화향유의 소외'가 꼭 경제적 요인이나 공간적 요인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타 다양한 이유(예컨대 성별이나 국적 등)로 문화적 소외를 경험하는 사람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소외계층 대상 사업'으로 조사대상을 확장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각 문예회관마다 연간 추진하는 전체 사업의 규모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건수'를 평가기준으로 설정하기보다 '전체사업대비 비율'로 대체하여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③ 다양성

2012지표시안은 시설의 다양성 구현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지역정체성과 문화전통 계승 및 재창조 사업'과 '문화교류사업'을 각각 설정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과 '지역사회로의 문화적 파급효과 확대'라는 측면에서, 지역정체성이나 문화전통을 계승하고 재창조하는 사업의 추진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사업의 '종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의 유형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유형기준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류'를 제외하고 '건수와 예산'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화교류사업의 확대는 문화다양성의 확보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기 때문에 본 지표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각 문예회관마다 특성과 상황이 다르므로 단순 '사업 건수'는 제외하고, '유형과 예산'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평가항목을 국내교류사업과 해외교류사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설정함으로써 각 시설에 세분화된 지향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④ 지속성

2012지표시안은 지속성 관련지표로 '운영예산의 증감비율'을 설정한 뒤, 이에 대한 척도로 '5% 이상 증가 / 1% 내외 증가 혹은 감소 / 5% 이상 감소'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척도의 타당성을 검토해보기 위해 인천의

문예회관 중 임의로 3개 시설을 선정하여 해당기준을 적용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3-3>과 같이 나타났다.

<표 3-3> 2012인천문화공공성지표시안에 의거한 문예회관별 예산 증감비율 평가

(단위 : %)

시 설	2010년-2011년		2011년-2012년	
	예산 증감비율	평가결과	예산 증감비율	평가결과
시설 A	+6.3	양호	-1.6	보통
시설 B	+5.5	양호	+2.7	보통
시설 C	-35.3	미흡	+3.6	보통

검토결과 '±5%'는 변별력 있는 척도로 기능하였으나, '1% 내외 증가 혹은 감소'로 설정된 척도의 경우 '-5%부터 +5%까지'를 모두 '보통'으로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척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표 3-4> 2012인천문화공공성지표시안의 수정·보완

평가 영역	평가지표	내 용	
		2012지표시안	수정·보완
개방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개방성	시민참여 가능여부	· '시민의 참여비율'로 대체
	시민참여 공청회/토론회	개최횟수 및 사업유형	· '횟수기준' 제시
	시민문화향유의 증진	시민문화향유 증진 사업 수	· '시설이용자 수의 증감비율'로 대체
	시설 접근성	교통수단, 거리, 소요시간	· '소요시간' 삭제
	편의시설 구비	편의시설 구비여부	· 법적기준 제시
평등성	저소득층 대상 사업	사업유형, 건수, 예산	· '문화소외계층 대상 사업'으로 통합집계
	문화소외지역주민 대상 사업	사업유형, 건수, 예산	
다양성	문화전통 계승/재창조 사업	사업유형, 건수, 예산	· '사업유형' 삭제
	문화교류사업	사업유형, 건수, 예산	· '건수' 삭제
지속성	운영예산 안정성	척도 : +5% / 1%내외 / -5%	· '1% 내외'를 세분화

2)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초안 구성

2013지표초안은 크게 4개의 평가영역과 13개의 평가지표, 그리고 23개의 세부지표로 구성하였다. 특히 2012지표시안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일부 수정/변형한 것 이외에도 12개의 세부지표를 새롭게 추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방성'영역에서는 시민만족도조사와 홍보 관련항목을 각각 추가하였다. 시설이용 만족도조사의 경우 시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시설운영 및 사업기획 단계에 반영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지표이며, 홍보의 경우 시민들에게 사업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평등성'영역에서는 문화향유 기회의 형평성과 관련된 지표를 2개 추가하였다. 하나는 문화소외계층 대상 사업의 내용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며, 또 하나는 요금체계가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조사하는 지표이다. 이는 모두 정성평가가 요구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다양성'영역에서는 4가지 세부지표를 추가하였다. 이 중 2개는 기초예술 및 실험예술을 육성하도록 권장하는 지표이며, 나머지 2개는 문화교류사업과 지역정체성 사업의 내용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사하는 정성지표이다.

마지막으로 '지속성'영역에서는 3개의 세부지표를 추가하였다. 첫 번째는 운영예산의 적정성으로, 각 문예회관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의 규모가 동종시설과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인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문화전문인력과 관계된 것으로,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전문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표 3-5>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초안

평가 영역	평가지표	세부지표	비고
개방성	사업계획 수립과정의 개방성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비율	
		의사결정기구 참여시민의 대표성	
		시민 및 시민단체나 지역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횟수 및 유형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	전년대비 전체 시설이용자 수의 증감비율	
	시민족도조사의 실시 및 반영	시설이용 만족도조사의 실시여부	
	시설 접근성	도보 5분 이내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의 종류와 수	
	사업 접근성	사업별 무관심 계층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 유형 및 개수	
		홍보방식 및 내용의 적절성	○
	시설이용의 편리성	이용자 편의시설(안내자료, 휴게실, 수유실, 엘리베이터 등) 구비여부	
평등성	시설이용의 형평성	소수자 배려시설의 구비기준 충족여부	
	문화향유 기회의 형평성	문화소외계층 대상 사업의 유형 및 (전체사업대비)비율	
		문화소외계층 대상 사업 내용의 적절성	○
		요금체계의 적절성	○
다양성	기초예술 및 실험예술의 육성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대관 승인비율	
		전체사업대비 순수예술 및 기초예술 기획공연의 비율	
	문화사업의 다양성	문화교류사업의 유형 및 예산 증감비율(국내교류사업/해외교류사업)	
		문화교류사업 내용의 적절성	○
	지역정체성과 문화전통의 확립	지역정체성과 문화전통 계승 및 재창조 사업의 수	
		지역정체성과 문화전통 계승 및 재창조 사업 내용의 적절성	○
지속성	운영예산의 안정성	운영예산의 적정성	○
		전년대비 시설 총 운영예산의 증감비율	
	전문성 제고	전체 임직원 수 대비 문화전문인력의 비율	
		문화전문인력 배치의 적합성	○

* 음영처리된 지표는 '기존 2012지표시안에 추가된 지표'를 의미하며, ○표시된 지표는 정성평가가 요구되는 지표임을 의미한다.

2.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초안 수정

2013지표초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문화예술 전문가와 문예회관 직원의 의견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13지표초안의 체계와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표의 체계

(1) 전체 지표체계 보완

전체 지표체계를 '기본지표'와 '보조지표'로 설정하였으며, 보조지표에는 '설문평가지표'와 '전문가평가지표'가 각각 포함된다. 2013지표초안은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객관적 시설평가가 가능한 지표로서, 평가자가 지표에 의거하여 각 문예회관을 평가하는 것을 가정하고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문예회관을 이용하는 주체는 시민들이라는 점, 그리고 문화예술사업의 '내용'을 문화공공성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련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평가방법을 다면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본지표 이외에 시민들과 평가대상시설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설문평가지표', 사업의 내용을 전문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지표'를 보조지표로서 추가·구성하였다.

(2) 세부지표의 유형 구분

세부지표의 유형을 '필수지표'와 '선택지표'로 구분하였다. 필수지표는 모든 문예회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지표이며, 선택지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문예회관일 경우 의무기준이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표이다. 문예회관은 각각 고유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시설마다 건립목표가 서로 다르며, 기초자치단체의 문예회관이 지닌 상황과 광역자치단체의 문예회관이 지닌 상황이 서로 다르다. 즉 동일한 평가지표를 모든 문예회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시설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부지표를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2) 개방성

‘개방성’ 영역은 시민만족도조사와 홍보유형을 세분화 하였다.

첫째, 2013지표초안의 ‘시민만족도조사’ 항목을 ‘시설이용 만족도조사’와 ‘사업별 만족도조사’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조사 실시여부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를 시설운영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함께 파악하도록 수정했다. 만족도조사가 시민의 문화적 요구를 수렴하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조사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조사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의견을 시설의 운영방향이나 사업기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 접근성과 관련된 지표를 구체화 및 세분화 하였다. 2013지표초안에서는 ‘온·오프라인 홍보 유형 및 개수’를 통해 사업 접근성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홍보의 유형을 정형화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 따라 정보지 발행여부, 홈페이지 및 SNS의 활성화 여부 항목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한편 시설마다 적합한 홍보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홍보방식 적절성’ 지표는 삭제하였으며, ‘시설 접근성(교통수단의 종류와 수)’ 지표의 경우 문예회관의 노력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하였다.

3) 평등성

‘평등성’ 영역에서는 소수자 대상 사업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각각 별도의 지표로 구성했다. 2013지표초안에서는 ‘문화소외계층 대상 사업’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사용했는데, 저소득층이나 문화소외지역주민, 다문화가정 등과 같이 이미 문예회관에서 일반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소수자 유형의 경우 별도의 지표로 구성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요금체계 적절성’ 지표의 경우 ‘적정요금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지불가능 금액’ 수준도 체계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어 삭제하였다.

4) 다양성

‘다양성’ 영역에서는 ‘문화사업의 다양성’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2013지표초안은 ‘다양성’ 영역을 ‘문화교류사업’으로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적 다양성이 꼭 문화교류사업만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즉 ‘공연/전시의 장르별 유형 개수’, ‘시민참여예술사업의 비율’ 등은 시설의 ‘다양성’ 구현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세부지표로 추가하였다. 한편 ‘대관 승인비율’ 지표는 ‘기초예술 및 실험예술 육성’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자문의견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순수/기초예술 비율’의 경우 순수/기초예술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자문의견에 따라 지표에서 제외하였다.

5) 지속성

‘지속성’ 영역에서는 ‘지역성 제고’ 항목을 추가하였다. 지역의 정체성과 전통을 계승·확립하는 방향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사업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2013지표초안의 세부지표인 ‘문화전문인력의 비율’에 ‘지역에서 양성된 문화전문인력의 비율’을 추가하여 구성하도록 하였다. 한편 ‘운영예산 적정성’과 ‘문화전문인력 배치 적합성’ 지표의 경우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자문의견에 따라 삭제하였다.

<표 3-6>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초안의 수정·보완

평가영역	평가지표	내 용	
		2013지표초안	수정·보완
전체 지표체계		단일지표	· 기본지표/보조지표(설문평가지표,전문가평가지표)
세부지표 유형		단일유형	· 필수지표/선택지표
개방성	사업계획 수립과정의 개방성	의사결정기구의 시민참여비율	· 문화예술인/전문가 제외
		참여시민의 대표성	· 전문가평가지표에 포함
		공청회/토론회 개최횟수, 유형	· 공청회/토론회 개최여부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	시설이용자 수 증감비율	· 목표 이용자 수 대비 달성비율

<표 3-6> 계속

평가 영역	평가지표	내 용	
		2013지표초안	수정·보완
	시민족도조사의 실시 및 반영	조사 실시여부	· 시설만족도/사업만족도 구분 · 반영여부 추가조사
	시설 접근성	교통수단, 종류, 수	· 삭제
	사업 접근성	홍보유형, 개수	· 홍보유형 세분화하여 조사
		홍보방식 적절성	· 삭제
	시설이용의 편리성	편의시설 구비여부	· 통합하여 조사
평등성	시설이용의 형평성	배려시설 구비여부	
	문화향유 기회의 형평성	소외계층 대상 사업 조사	· 소외계층 세분화하여 조사
		소외계층 대상 사업 적절성	· 전문가평가지표에 포함
		요금체계 적절성	· 삭제
다양성	기초예술 및 실험예술의 육성	대관 승인비율	· 삭제
		순수/기초예술 비율	· 삭제
	문화사업의 다양성	문화교류사업	· 해외문화교류사업으로 제한 · 다양성 관련지표 3개 추가
		문화교류사업 적정성	· 전문가평가지표에 포함
	지역정체성과 문화전통의 확립	문화전통 계승/재창조 사업 개수	· 비율로 조사
		문화전통 계승/재창조 사업 적절성	· 전문가평가지표에 포함
지속성	운영예산의 안정성	운영예산 적정성	· 삭제
		운영예산 증감비율	· 시설비 제외하고 조사
	전문성 제고	문화전문인력 비율	· 지역에서 양성된 전문인력 비율 추가조사
		문화전문인력 배치 적합성	· 삭제

3.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

1) 지표의 체계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는 '기본지표'와 '보조지표(설문평가지표와 전문가평가지표)'로

구성된다[6]. 이 중 핵심은 기본지표로, 설문평가지표와 전문가평가지표는 기본지표를 보완하는 역할로 설정하였다[7].

<표 3-7>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의 체계

구 분		세부지표 수	조사방법
기본지표		22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보조지표	설문평가지표	24 (시민대상 10, 직원대상 14)	시민 및 직원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평가지표	5	사업의 내용 및 구성에 대한 관련전문가의 평가
계		51	·

2) 지표의 구성

(1) 기본지표

기본지표는 개방성, 평등성, 다양성, 지속성 등 4개의 평가영역을 비롯하여 11개의 평가지표와 22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개방성' 영역은 '사업계획 수립과정의 개방성' 외 3개의 평가지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등성'은 '시설이용의 형평성'과 '문화향유 기회의 형평성', '다양성'은 '문화사업의 다양성' 및 '지역정체성과 문화전통의 확립', '지속성'은 '운영예산의 안정성', '전문성 제고', '지역성 제고' 지표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22개의 세부지표별 배점은 문화예술 전문가 및 문예회관 직원의 의견을 토대로 설정하였는데, 전문가와 직원의 지표별 적정성 평가결과[8]가 8점 이상일 경우 '5점', 그 이하일 경우 '2점'으로 하였다. 단, '시민만족도조사의 실시 및 반영'과 같이 하나의 평가지표에 두 개 이상의 '5점 지표'가 포함될 경우 각 지표별 배점은 2점으로 하였으며, 예외적으로 'SNS 업데이트 주기'는 '사업 접근성'에 포함된 타 세부지표와의 배점을 차등화하기 위해 3점으로 설정하였다. 또 '문화전통 계승/재

6) 이하 내용 중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로 표기한 것은 '기본지표'를 의미하며, 보조지표를 가리킬 때는 '설문평가지표', '전문가평가지표' 등과 같이 직접 언급하였다.
7) 단, 세 개의 지표 간 연동방식(배점 할당 등)은 추후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표별 배점을 따로 할당하지 않았으며, 대상시설의 조사는 기본지표와 설문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실험적용하였다.
8) 전문가 및 직원의 지표별 적정성 평가결과는 <부록> 참조.

창조 사업'과 '문화전문인력' 관련지표의 경우 평가결과는 '2점 지표'에 해당하지만 자문의견에 따라 각 3점으로 설정하였다.

<표 3-8>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 : 기본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세부지표		배점
개방성	사업계획 수립과정의 개방성	운영위원회에 일반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비율 (문화예술인 및 전문가 제외)		2
		시민 및 시민단체나 지역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토론회의 개최 여부		2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	목표로 설정한 전체 시설이용자 수 대비 달성비율		2
	시민만족도조사의 실시 및 반영	시설이용 만족도조사 실시여부 및 결과 반영여부		2
		사업별 만족도조사 실시여부 및 결과 반영여부		2
	사업 접근성	정보지/소식지/뉴스레터 발행 여부		2
		홈페이지 활성화 여부	전년대비 홈페이지 방문객 수의 증감비율	2
		SNS 활성화 여부	전년대비 시민 게시글 수의 증감비율	2
			업데이트 주기	3
	계			19
평등성	시설이용의 형평성	소수자 배려시설의 구비기준 충족여부		5
	문화향유 기회의 형평성	전체사업대비 저소득층 대상 사업의 비율		2
		전체사업대비 문화소외지역주민 대상 사업의 비율		2
		전체사업대비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대상 사업의 비율		2
		전체사업대비 기타 문화적 약자 대상 사업의 비율		2
	계			13
다양성	문화사업의 다양성	해외문화교류사업의 문화권별 유형 개수		2
		공연의 장르별 유형 개수		2
		전시의 장르별 유형 개수		2
		전체사업대비 시민참여예술사업의 비율		2
	지역정체성과 문화전통의 확립	전체사업대비 지역정체성과 문화전통 계승 및 재창조 사업의 비율		3
	계			11
지속성	운영예산의 안정성	전년대비 시설 총 운영예산의 증감비율(시설비 제외)		5
	전문성 제고	전체 임직원 수 대비 문화전문인력의 비율		3
	지역성 제고	전체 임직원 수 대비 지역에서 양성된 문화전문인력의 비율		2
	계			10
총 계				53

(2) 보조지표

① 설문평가지표

설문평가지표는 '시민대상 설문평가지표'와 '직원대상 설문평가지표'로 각각 구분된다. 시민평가는 '시설의 접근성', '사업의 접근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사업의 지속성' 등 4개 평가지표로 구성되며 평가항목은 총 10개이다. 직원평가는 '문화향유의 평등성', '시설운영의 개방성 및 공정성', '문화사업의 다양성', '사업의 지속성' 등 4개 지표로 구성되며 평가항목은 총 14개이다.

설문평가의 구체적 대상은 '시민대상 설문평가'일 경우 '조사시점에 대상시설을 방문한 모든 관람객'이며, '직원대상 설문평가'일 경우 '조사당시 대상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임직원'이다. 단, 시민대상 설문평가의 경우 평가주체가 '특정계층의 관람객'들로 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일 프로그램이 아닌)최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관람객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할 것을 권장한다. 설문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1:1 개별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표 3-9>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 : 설문평가지표

대상	평가지표	평 가 항 목
시민	시설의 접근성	교통이 편리한지 여부
		건물 외관이 편안한 느낌을 주는지 여부
		안내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 여부
	사업의 접근성	프로그램의 수준이 적절한지 여부
		프로그램 진행시간이 시민들의 여가시간과 부합하는지 여부
		관람료가 적절한지 여부
		프로그램 관련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지 여부
	프로그램의 다양성	시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 시민들이 관람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지 여부
	사업의 지속성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여부
		직원들의 태도가 친절한지 여부
직원	문화향유의 평등성	노약자, 어린이, 여성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한지 여부
		외국인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한지 여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한지 여부
		저소득층을 위한 충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표 3-9> 계속

대상	평가지표	평 가 항 목
직원	시설운영의 개방성 및 공정성	문화사업 관련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는지 여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조직 내부에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임직원 간 토론의 결과가 시설운영에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문화사업의 다양성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
	사업의 지속성	문화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시설의 운영목표를 이해 및 공감하고 있는지 여부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여부

② 전문가평가지표

전문가평가지표는 '사업계획 수립과정의 개방성' 외 4개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5개의 평가지표 중 3개는 문예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나 구성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며, 나머지 2개는 '사업계획 수립과정의 개방성' 및 '시민만족도조사 결과의 반영'과 관련된 지표이다.

전문가평가의 평가주체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최소 3명 이상 위촉할 것을 권장한다. 위촉된 문화예술 전문가는 대상시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조직, 운영, 사업의 적절성을 각각 평가하며, 전문가 평가결과의 평균값을 시설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표 3-10> 문예회관문화공공성평가지표 : 전문가평가지표

평가지표	평 가 항 목
사업계획 수립과정의 개방성	운영위원회에 참여 중인 시민들의 구성이 적절한가?
시민만족도조사 결과의 반영	시민만족도조사 결과를 사업기획 및 시설운영 단계에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 적절한가?
문화향유 기회의 형평성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의 내용과 구성이 적절한가?
문화사업의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의 내용과 구성이 적절한가?
지역정체성과 문화전통의 확립	지역정체성과 문화전통 계승 및 재창조 사업의 내용이 적절한가?

3) 조사방법[9)]

(1) 개방성

① 사업계획 수립과정의 개방성

문예회관에서 시설운영계획이나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운영위원회에 일반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비율'과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및 토론회의 개최 횟수'를 조사한다. 만약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설운영 및 사업기획과 관련된 주요의 사결정기구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며, 지역문화예술인과 전문가는 '일반시민'의 범주에서 제외한다. 본 지표는 최대한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시민참여를 권장하며, 개별사업 기획에 관한 운영위원회일 경우 사업대상층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권장한다.

②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

문예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는 '각 시설이 목표로 설정했던 전체 시설이용자 수의 실제 달성 비율'을 조사함으로써 파악한다. 이때 각 시설은 전년대비 감소된 수치를 목표로 설정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 타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③ 시민만족도조사의 실시 및 반영

문예회관 이용시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설운영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는 '시설이용 만족도조사의 실시 여부 및 결과 반영여부'와 '사업별 만족도조사의 실시 여부 및 결과 반영여부'를 각각 구분하여 조사한다. 이때 '조사결과의 반영여부'란 '시설의 운영방향을 설정하거나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시민조사결과가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④ 사업 접근성

시민들이 문예회관에서 추진하는 공연/전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온·오프라인 상의 홍보 및 정보전달 체계를 적절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기

9) 지표별 평가척도의 경우 인천광역시의 대표적 문예회관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문화공공성 구현 수준을 참고하여 1차 설정하였으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및 확정하였다.

위한 지표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정보지/소식지/뉴스레터의 발행여부', '전년대비 홈페이지 방문객 수의 증감비율', '전년대비 SNS 내 시민 게시글 수의 증감비율', 'SNS의 업데이트 주기' 등이다. 이때 '정보지/소식지/뉴스레터'의 경우 온·오프라인 발행물을 모두 포함하며, SNS의 종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표 3-11> '개방성' 영역의 지표별 척도

평가영역	평가지표	세부지표		배점	평가척도 구분		점수
개방성	사업계획 수립과정의 개방성	운영위원회에 일반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비율 (문화예술인 및 전문가 제외)		2	미참여		0.0
					5% 미만		0.4
					5% 이상 10% 미만		0.8
					10% 이상 15% 미만		1.2
					15% 이상 20% 미만		1.6
					20% 이상		2.0
		시민 및 시민단체나 지역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토론회의 개최 여부		2	미개최		0.0
					개최		2.0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	목표로 설정한 전체 시설이용자 수 대비 달성비율		2	80% 미만		0.0
					80% 이상 90% 미만		1.0
					90% 이상 100% 미만		1.5
					100% 이상		2.0
	시민만족도조사의 실시 및 반영	시설이용 만족도조사 실시여부 및 결과 반영여부		2	미실시	조사결과 반영 시 2점 추가	0.0
					실시		2.0
		사업별 만족도조사 실시여부 및 결과 반영여부		2	미실시	조사결과 반영 시 2점 추가	0.0
					실시		2.0
	사업 접근성	정보지/소식지/뉴스레터 발행 여부		2	미발행		0.0
					발행		2.0
		홈페이지 활성화 여부	전년대비 홈페이지 방문객 수의 증감비율	2	0% 미만(감소)		0.0
					0% 이상 +5% 미만		1.0
					+5% 이상 +10% 미만		1.5
					+10% 이상		2.0
		SNS 활성화 여부	전년대비 시민 게시글 수의 증감비율	2	감소 or SNS 미활용		0.0
					0% 이상 +10% 미만		1.0
					+10% 이상		2.0
			업데이트 주기	3	월 1회 미만 or SNS 미활용		0.0
					월 1회 ~ 월 2회		1.0
					월 3회 ~ 월 4회		2.0
					월 4회 이상		3.0
	계			19	·		·

(2) 평등성

① 시설이용의 형평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충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세부지표는 '소수자 배려시설을 법적 기준에 충족하여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법적 기준 이외의 추가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소수자 배려시설의 법적 구비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10]에 의거하며, 추가 편의시설의 예로는 수화, 통역, 정보안내시스템 등이 있다.

② 문화향유 기회의 형평성

공간적·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의 이유로 각종 문화예술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다. 이는 '전체사업 대비 저소득층 대상 사업의 비율', '전체사업 대비 문화소외지역주민 대상 사업의 비율', '전체사업 대비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대상 사업의 비율', '전체사업 대비 기타 문화적 약자 대상 사업의 비율' 등으로 나눠 조사하며, 각 사업의 비율은 횟수가 아닌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업대상에서 '기타 문화적 약자'란 '소득, 지역, 국적에 따른 문화소외계층 이외의 문화적 소수자'로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인, 외국인 등이 있다.

<표 3-12> '평등성' 영역의 지표별 척도

평가영역	평가지표	세부지표	배점	평 가 척 도	
				구 분	점수
평등성	시설이용의 형평성	소수자 배려시설의 구비기준 충족여부	5	법적 의무기준 미달	0.0
				법적 의무기준 충족	2.0
				법적 권장기준 충족	3.0
				법적 권장기준 이외의 배려시설 추가 구비	5.0
	문화향유 기회의 형평성	전체사업대비 저소득층 대상 사업의 비율	2	없음	0.0
				2% 미만	1.0
				2% 이상 5% 미만	1.5
				5% 이상	2.0

10) 실정법에 명시된 소수자 배려시설의 설치기준은 <부록> 참조.

<표 3-12> 계속

평가 영역	평가지표	세부지표	배점	평 가 척 도	
				구 분	점수
		전체사업대비 문화소외지역주민 대상 사업의 비율	2	없음	0.0
				2% 미만	1.0
				2% 이상 5% 미만	1.5
				5% 이상	2.0
		전체사업대비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대상 사업의 비율	2	없음	0.0
				2% 미만	1.0
				2% 이상 5% 미만	1.5
				5% 이상	2.0
		전체사업대비 기타 문화적 약자 대상 사업의 비율	2	없음	0.0
				2% 미만	1.0
				2% 이상 5% 미만	1.5
				5% 이상	2.0
	계		13	·	·

(3) 다양성

① 문화사업의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의 노력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세부지표는 '해외문화교류사업의 문화권별 유형 개수', '공연의 장르별 유형 개수', '전시의 장르별 유형 개수', '전체사업대비 시민참여예술사업의 비율' 등 4개이다. 이때 문화권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 슬라브, 이슬람, 아프리카, 게르만, 라틴, 북극, 복합 등 10개 유형을 기준으로 한다. 또 공연의 장르는 연극, 뮤지컬, 무용, 발레, 양악, 오페라, 국악, 복합장르 등 8개로 구분[11]하며, 전시의 경우 회화·판화, 도예·공예, 조각, 사진, 건축, 영상·미디어아트, 설치, 서예·서각, 복합예술, 기타 등 10개로 구분[12]한다. '시민참여예술사업'이란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창작하는 공연을 의미하며, 공연횟수가 아닌 창작 작품의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지역정체성과 문화전통의 확립

문예회관이 지역정체성과 문화전통을 계승하고 재창조하기 위한 사업을 개발 및

11) 연극의 경우 뮤지컬을 제외한 연극, 즉 아동극, 마당극, 인형극, 마임 등 제반 극장르를 포함하며, 양악의 경우 오페라를 제외한 전체(기악 및 성악)를 의미한다. 또 복합장르는 위의 장르에 들지 않는 퓨전 장르나 2개 이상의 장르를 하나의 공연으로 다루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2) 복합예술은 2개 이상의 장르를 하나의 전시로 다루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기타의 예는 '난전시' 등이 있다.

추진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다. 조사내용은 전체사업대비 '지역정체성과 문화전통 계승 및 재창조 사업'의 비율인데, '지역정체성과 문화전통 계승 및 재창조 사업'이란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하여 기획한 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를 의미한다. 단, 유·무형의 문화재를 단순히 재현한 행사는 제외한다.

<표 3-13> '다양성' 영역의 지표별 척도

평가 영역	평가지표	세부지표	배점	평 가 척 도	
				구 분	점수
다양성	문화사업의 다양성	해외문화교류사업의 문화권별 유형 개수	2	없음	0.0
				1개 이상 3개 미만	1.0
				3개 이상	2.0
		공연의 장르별 유형 개수	2	5개 미만	0.0
				5개 이상 7개 미만	1.0
				7개 이상	2.0
		전시의 장르별 유형 개수	2	4개 미만	0.0
				4개 이상 6개 미만	1.0
				6개 이상	2.0
		전체사업대비 시민참여예술사업의 비율	2	없음	0.0
				2% 미만	1.0
				2% 이상 5% 미만	1.5
				5% 이상	2.0
	지역정체성과 문화전통의 확립	전체사업대비 지역정체성과 문화전통 계승 및 재창조 사업의 비율	3	없음	0.0
				1개	1.0
				2개	2.0
				3개 이상	3.0
	계		11	·	·

(4) 지속성

① 운영예산의 안정성

문예회관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다. 전년대비 총 운영예산의 증감비율을 조사하되, 시설비는 제외한다.

② 전문성 제고 여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관련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전체 임직원 수 대비 문화전문인력의 비율을 조사하도록 한다. 이때 문화

전문인력이란 ①대학 또는 정부가 인정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문화예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②정부가 인정하는 공공교육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서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대한 1년 이상의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③정부가 인정하는 공공교육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서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정부가 시행하는 문화예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의미한다(양경학, 2003; 김창수, 2012에서 재인용).

③ 지역성 제고 여부

문예회관이 지역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인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전체 임직원 수 대비 문화전문인력의 비율'을 조사한다. '지역에서 양성된 문화전문인력'이란 인천광역시 내 교육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전공자나 관련 프로그램 수료자를 의미한다.

<표 3-14> '지속성' 영역의 지표별 척도

평가 영역	평가지표	세부지표	배점	평 가 척 도	
				구 분	점수
지속성	운영예산의 안정성	전년대비 시설 총 운영예산의 증감비율(시설비 제외)	5	-5% 미만	0.0
				-5% 이상 0% 미만	1.2
				0% 이상 +2% 미만	2.5
				+2% 이상 +5% 미만	3.7
				+5% 이상	5.0
	전문성 제고	전체 임직원 수 대비 문화전문인력의 비율	3	없음	0.0
				10% 미만	1.0
				10% 이상 20% 미만	1.4
				20% 이상 30% 미만	1.8
				30% 이상 40% 미만	2.2
				40% 이상 50% 미만	2.6
				50% 이상	3.0
	지역성 제고	전체 임직원 수 대비 지역에서 양성된 문화전문인력의 비율	2	없음	0.0
				5% 미만	0.4
				5% 이상 10% 미만	0.8
				10% 이상 15% 미만	1.2
				15% 이상 20% 미만	1.6
				20% 이상	2.0
	계		10	·	·

제4장

인천광역시 문예회관의 문화공공성 평가

제1절 인천광역시 문예회관 현황

제2절 대상시설별 지표예비조사 결과

제3절 시사점 :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 조정

제4장 인천광역시 문예회관의 문화공공성 평가

제1절 인천광역시 문예회관 현황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하면 문화기반시설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 전수시설'을 가리킨다. 또 문화기반시설은 기능에 따라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 보급·전수시설, 종합시설, 그 밖의 문화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문예회관의 경우 공연시설에 포함된다.

<표 4-1> 문화기반시설의 종류

문화기반시설	시설분류
공연시설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전시시설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	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문화 보급·전수시설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공연시설에 또 다른 기능이 복합된 시설
그 밖의 문화시설	규정된 문화시설 이외의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

자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문화기반시설은 시민들의 문화향수 확대를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문화기반시설 현황을 조사해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발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국의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등에 대한 기초정보가 담겨있다. 본 연구는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근거하여 인천의 문화기반시설 분포현황을 살펴본 뒤, 인천 문예회관의 주요 특징을 개괄하였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주요 문화기반시설은 2012년 기준 64개소로, 공공도서관 31개소[13], 등록박물관 22개소, 등록미술관 4개소, 문예회관 8개소[14]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전체 문화기반시설의 수가 52개소였던 2010년에 비해 25% 증가한 수치이며, 등록미술관을 제외한 3개 시설이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인천광역시가 지난 2010년 <2014 비전과 실천전략>을 통해 '문화인프라 확충을 통한 문화공간 확대'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책 읽는 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문예회관의 경우도 2010년부터 부평아트센터, 남동문화예술회관, 중구문화회관이 차례대로 개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등록미술관의 경우 연수구에 위치한 송도디오아트센터가 지난 2010년 10월 휴관함에 따라 전체시설 중 유일하게 감소된 수치를 보였다.

<표 4-3> 인천광역시 주요 문화기반시설의 증감현황 (2010년~2012년)

(단위 : 개소, %)

년도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계	
	시설수	증감비율	시설수	증감비율	시설수	증감비율	시설수	증감비율	시설수	증감비율
2010년	24	-	19	-	4	-	5	-	52	-
2011년	26	+8.3	22	+15.8	5	+25.0	6[15]	+20.0	59	+13.5
2012년	31	+19.2	22	-	4	-20.0	8	+60.0	65	+10.2

자료 : 「2010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012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의 내용을 연구자가 편집 및 재구성

13) <201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12)은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지역별 공공도서관 개수와 차이가 있다. '2012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2012)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인천광역시의 공공도서관은 총 47개소로, 구별 분포는 아래의 <표 4-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조건에서 조사된 광역시별 시설분포현황과 3개년 분포현황을 시계열 분석하기 위해, 시설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은 <201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표 4-2> 인천광역시 군·구별 공공도서관 현황(2012년 기준)

(단위 : 개소)

지역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계
개소	3	2	13	3	5	7	5	5	2	2	47

14) 2012년에 개관한 '중구문화회관'의 경우 <201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이 작성될 당시에는 개관하지 않아 집계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는 개관 후 운영 중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집계하였다.

15) <201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 집계하고 있는 문예회관 수는 5개소이지만, 2010년 4월 개관한 부평아트센터를 추가하여 6개소로 수정하였다.

군·구별 주요 문화기반시설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남구가 16개소(23.5%)로 가장 많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어서 부평구(9개소, 13.2%)와 중구(8개소, 11.8%)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옹진군(1개소, 1.5%)과 동구(3개소, 4.4%)는 10개 군·구 중 가장 적은 수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옹진군의 경우 백령도서관이 지역의 유일한 주요 문화기반시설로서 운영되고 있다.

<표 4-4> 인천광역시 주요 문화기반시설의 군·구별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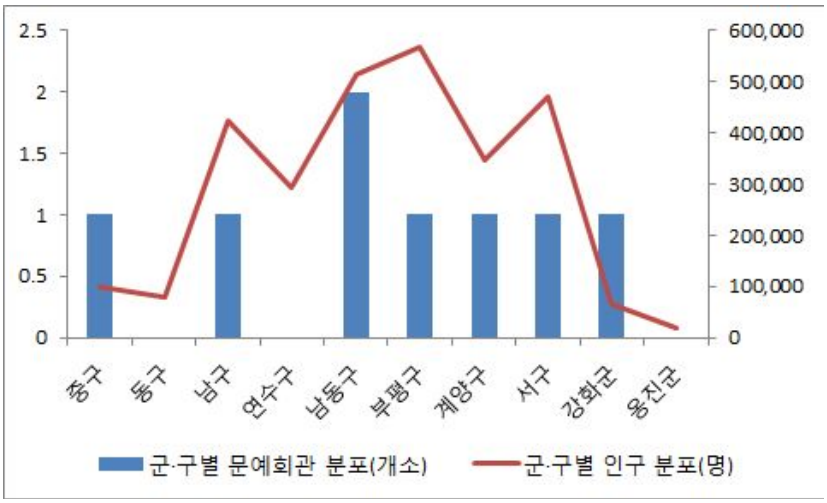
군·구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계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중구	2	6.5	4	18.2	1	25.0	1	12.5	8	11.8
동구	2	6.5	1	4.6	0	0.0	0	0.0	3	4.4
남구	7	22.6	4	18.2	1	25.0	1	12.5	16	23.5
연수구	3	9.6	3	13.6	0	0.0	0	0.0	6	8.8
남동구	2	6.5	2	9.1	0	0.0	2	25.0	6	8.8
부평구	5	16.1	3	13.6	0	0.0	1	12.5	9	13.2
계양구	4	12.9	0	0.0	0	0.0	1	12.5	5	7.4
서구	4	12.9	2	9.1	0	0.0	1	12.5	7	10.3
강화군	1	3.2	3	13.6	2	50.0	1	12.5	7	10.3
옹진군	1	3.2	0	0.0	0	0.0	0	0.0	1	1.5
계	31	100.0	22	100.0	4	100.0	8	100.0	68	100.0

자료 : 「2012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을 연구자가 재작성

문예회관은 문화예술 공연·전시 행사를 주목적으로 하는 종합문화공간으로, 주요 문화기반시설 중 예산규모와 지역에 미치는 문화적 파급효과 등이 가장 큰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가 보유한 문예회관은 시에서 직영하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하여 총 8개소인데, 이는 6대 광역시 중 부산(12개소)과 대구(9개소)에 이어 세 번째 수준이다.

군·구별 문예회관 분포를 살펴보면 남동구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남동문화예술회관 등 2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구, 남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이 각각 1개소의 문예회관을 운영 중에 있다. 따라서 문예회관 미건립 지자체인 동구,

연수구, 옹진군은 문예회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연수구의 경우 인구규모나 구민들의 문화수요를 고려할 때 문화예술교육기능까지 포함된 예술회관을, 동구와 옹진군의 경우 공연·전시·교육·체육 등의 복합기능을 지닌 복합문화시설을 각각 계획하여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구의 경우 관내에 인천문화회관이 위치해 있으나 예총인천지회의 문화행사나 작품발표 공간이라는 성격이 강하므로 별도의 문예회관 설립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창수, 2011a).



<그림 4-1> 군·구별 인구 대비 문예회관 현황

인천에 위치한 문예회관의 직원 및 전문직원 보유수준, 공연 및 전시일수, 총 이용자수 및 유료 관객율 등을 6대 광역시 평균값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표 4-5>와 같다[16]. 먼저 1관당 직원수와 전문직원수의 경우[17] 광역시 평균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전문직원수는 광역시의 51% 수준으로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시설 가동률(공연 및 전시일수)의 경우

16) 앞서 언급하였듯 본 연구에서는 <2012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수록된 인천광역시 문예회관들 중 인천문화회관은 제외하였으며, 반대로 총람에 수록되지 않았던 중구문화회관을 목록에 추가함으로써 문예회관 현황을 재구성하였다. 단, 중구문화회관은 운영기간이 짧아 공연일수, 전시일수, 총 이용자수, 유료 관객율 등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인천 문예회관 평균지표를 작성하였다.

17) <2012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전체 직원수와 전문인력수를 39명, 25명으로, 부평아트센터의 전체 직원수와 전문인력수를 17명, 13명으로 각각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조사결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전체 직원수 38명, 전문인력 2명, 부평아트센터는 전체 직원수 17명, 전문인력 13명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수정한 뒤 재구성하였다.

공연일수는 광역시 평균보다 부족하지만 전시일수는 광역시 평균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 문예회관은 1관당 평균 이용자수가 광역시의 62%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유료 관람객의 비율은 오히려 약 10% 가량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인천 문예회관이 타 광역시의 문예회관에 비해 상업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5> 인천과 6대 광역시 간 문예회관 평균지표 비교

(단위 : 개소, 명, 일, 명, %)

구분	시설수	1관당 평균						
		직원수	전문직원 수	전체직원 대비 전문직원 비율	공연 일수	전시 일수	총 이용자수	유료 관객율
인천	8	16.38	8.25	46.3	132	254	99,807	39.12
6대 광역시	6.7 (평균)	27.06	15.91	58.7	160	198	160,954	29.91

자료 : 「2012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과 '중구문화회관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재작성

한편 문예회관의 운영체계는 ①시·군 직영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경우, ②민간 위탁하는 경우, ③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위탁하는 경우, ④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위탁하는 경우, ⑤개인이나 외부 업체(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등 5가지 형태가 있다(김창수, 2011b). 인천은 지자체,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이 각각 문예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인천광역시가 직영하고 있고, 남동문화예술회관과 중구문화회관은 각 자치구가, 부평아트센터는 부평구문화재단이, 계양문화회관, 서구문화회관, 강화군문예회관은 각 자치군·구의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 운영 중이다.

<표 4-6> 인천 문예회관의 운영주체 및 운영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주체	운영예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광역시	18,884
중구문화회관	인천광역시 중구	1,030
인천문화회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광역시연합회	443
남동문화예술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1,068
부평아트센터	(재)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2,189
계양문화회관	계양구시설관리공단	614
서구문화회관	서구시설관리공단	1,104
강화군문예회관	강화군시설관리공단	213

자료 : 「2012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재작성 (중구문화회관 추가)

제2절 대상시설별 지표예비조사 결과[18)]

2012년도 기준 인천광역시에는 총 64개의 주요 문화기반시설이 있다. 이 중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인천광역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인천의 대표적 복합문화공간이자 연간 30만 명의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기반시설이며, 부평아트센터는 연간운영비와 시설 가동률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 이어 두 번째 수준일 뿐만 아니라 인천의 문예회관 중 유일하게 문화재단이 위탁관리 중인 시설이다. 본 연구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부평아트센터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뒤, 문화공공성의 구현정도를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를 적용하여 4가지 핵심가치(개방성, 평등성, 다양성, 지속성) 중심으로 조사하였다[19)].

18) 본 조사는 문예회관의 실정에 맞는 문화공공성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예비조사이므로 두 시설에 대한 공식평가가 아니며, 유사한 비교치가 없으므로 본 조사의 결과를 시설에 대한 평가로 인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19)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는 평가영역별 문항수와 총점이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백분율값을 중심으로 분석·평가하였다. 이때 백분율값에 따른 평가기준은 아래의 <표 4-7>과 같은데, 이러한 기준은 두 시설의 문화공공성 조사결과를 영역별로 상대·비교하기 위해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한 것임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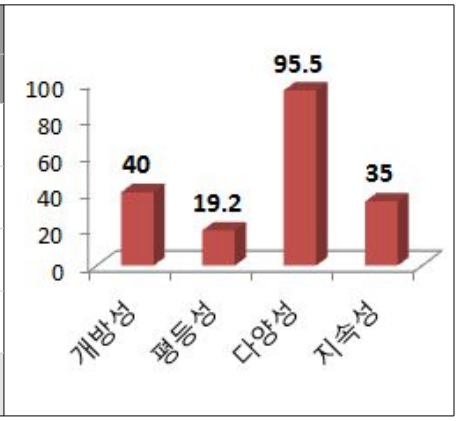
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20]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를 적용하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을 조사한 결과, 예술회관의 문화공공성 구현정도는 낮은 수준(47.4%)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양성'은 매우 높은 편(95.5%)으로 나타났으며, '개방성'은 낮은 편(40.0%), '평등성'(19.2%)과 '지속성'(35.0%)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 4-8>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조사결과

(단위 : 점, %)

조사영역	배점	조사결과		
		점수	백분율	평가
개방성	15	6.0	40.0	낮음
평등성	13	2.5	19.2	매우 낮음
다양성	11	10.5	95.5	매우 높음
지속성	10	3.5	35.0	매우 낮음
계	49	22.5	47.4[21]	낮음



1) 개방성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개방성' 구현정도는 낮은 수준(4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제공과 관련된 '사업 접근성'은 높게 나타났지만, 시민이 참여하는 운영

<표 4-7> 문화공공성 조사결과의 백분율값에 따른 평가기준

백분율(%)	평가기준
70 이상	매우 높음
60 이상 70 미만	높음
50 이상 60 미만	보통
40 이상 50 미만	낮음
40 미만	매우 낮음

20)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의 영역별 배점은 '개방성' 19점, '평등성' 13점, '다양성' 11점, '지속성' 10점으로 총 53점이다. 그러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경우 '목표 이용자 수 대비 달성비율'과 '홈페이지 방문객 수의 증감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해당지표의 배점을 제외하고 계산하였다.

21) 4개 영역을 가중치 없이 동일한 배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값이다.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시민만족도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사업계획 수립과정의 개방성'과 '시민만족도조사의 실시 및 반영'은 매우 낮은 편이었기 때문이다. 세부 지표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9>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조사결과 : 개방성

(단위 : 점, %)

평가지표	세 부 지 표		배점	조사결과
사업계획 수립과정의 개방성	운영위원회의 시민참여		2	0
	시민참여 공청회/토론회 개최		2	0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	전체 시설이용자 수		-	-
시민만족도 조사의 실시 및 반영	시설이용 만족도조사		2	0
	사업별 만족도조사		2	0
사업 접근성	정보지/소식지/뉴스레터의 발행		2	2
	홈페이지 방문객 수		-	-
	SNS 내 시민 게시글 수		2	2
	SNS의 업데이트 주기		3	2
계		점수	15	6
		백분율	40.0	

시설의 운영방향을 결정하거나 사업을 기획할 때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인적구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운영전반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에 의거하여 시립예술단의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와 예술회관의 시설사용 신청을 심의하는 '대관심의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어 있었다[22]. 두개의 위원회도 모두 공무원과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을 뿐 일반시민은 참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시민대상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없어, '사업계획 수립과정의 개방성'과 '시민만족도조사의 실시 및 반영' 항목 모두 매우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를 위한 노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목표로 설정한 연간 총 관람객 수'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22)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와 대관심의위원회는 각각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제4조와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구성되었다.

까지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단,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실제 총 관람객 수는 2012년도 기준 234,743명으로, 2011년 대비 약 1.6% 증가하였다[23].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하는 공연·전시의 정보가 시민들에게 다양한 경로로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보지 발행여부와 홈페이지 및 SNS의 활성화 여부를 각각 조사하였다. 정보지의 경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4종류의 정보지/뉴스레터를 월간지(공연 안내지, 캘린더), 계간지(아트인천), 연간지(공연연보) 형태로 발행하고 있어 권장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홈페이지의 신규가입자 수는 2012년 기준 1,133명으로 2011년 대비 약 11.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24] SNS의 경우 2011년 페이스북이 개설된 이래 2012년부터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정보수집의 용이성'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는데,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정보수집이 어렵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25].

---

23) 본 연구는 각 문예회관에서 설정해놓은 '전체 시설 이용자 수'의 목표치를 토대로, 이에 대한 실제 달성비율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시설 이용자 수에 대한 목표 설정치가 없었기 때문에 우회방안으로 2011년과 2012년의 시설 이용자 수를 각각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2011년도 전체 관람객은 230,953명, 2012년도 전체 관람객은 234,743명으로 각각 집계되었다. 이는 예술회관의 '실내공연 관람객'만을 집계한 결과로, 야외공연 관람객과 전시 관람객의 경우 예술회관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제외하였다.

24)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경우 홈페이지에 방문자 집계기능이 없어 연도별 '홈페이지 방문객 수'의 비교가 불가능했으며, 따라서 '홈페이지 가입자 수'로 대체·조사하였다.

25) '정보수집의 용이성'을 묻는 질문에 '어렵다'고 답한 비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부터 40대의 경우 각각 3.6%, 18.6%, 17.2%, 14.0%로 나타났지만, 50대부터 70대의 경우 각각 23.5%, 20.0%, 33.3%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다.(<표 4-10> 참조)

<표 4-10>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정보수집의 용이성 (n=200)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5점 평균
전 체		100.0(200)	16.5	35.0	32.5	14.5	1.5	3.5
연령	10대	14.0(28)	35.7	35.7	25.0	3.6	0.0	4.0
	20대	35.0(70)	12.9	37.1	31.4	15.7	2.9	3.4
	30대	14.0(29)	10.3	41.4	31.0	17.2	0.0	3.7
	40대	21.0(43)	14.0	39.5	32.6	14.0	0.0	3.5
	50대	9.0(17)	17.6	23.5	35.3	23.5	0.0	3.4
	60대	5.0(10)	20.0	0.0	60.0	20.0	0.0	3.2
	70대	2.0(3)	0.0	33.3	33.3	0.0	33.3	2.7

<표 4-1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활성화 현황

(단위 : 명, 개, %)

구분	홈페이지				페이스북		
	가입자 수	시민 게시글			계	시민 댓글	'좋아요'
		계	Q&A	관람평			
2011년	1,282	103	47	56	2	1	1
2012년	1,133	108	44	64	45	1	44
증감비율	-11.6	+4.9	-6.4	+14.3	+2,150.0	-	+4,300

2) 평등성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평등성' 구현정도는 4가지 조사영역 중 가장 낮은 수준(19.2%)으로 나타났다. '소수자 배려시설'의 구비현황이 법적 의무기준에 미달했고, '전체사업 대비 소수자 대상 사업의 비율'은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에서 제시하는 권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적 약자 대상 사업이나 문화소외지역주민 대상사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부지표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2>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조사결과 : 평등성

(단위 : 점, %)

평가지표	세 부 지 표		배점	조사결과
시설이용의 형평성	소수자 배려시설의 구비		5	0
문화향유 기회의 형평성	저소득층 대상 사업		2	0
	문화소외지역주민 대상 사업		2	1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대상 사업		2	0
	기타 문화적 약자 대상 사업		2	1.5
계		점수	13	2.5
		백분율	19.2	

(1) 시설이용의 형평성

장애인, 임산부 등이 예술회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소수자 배려시설 구비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표 4-12>

에서 보듯 대부분의 항목은 법적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으나, 영유아용 시설, 청각장애인/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보설비,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판매기/음료대 등은 법적 의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소수자 배려시설 구비현황

구분	소 수 자 배 려 시 설	구비현황
매개시설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
내부시설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승강기/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경사로	○
위생시설	장애인용 대변기 개수 : 남자용과 여자용 구분	남3개, 여3개, 공용1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소변기 및 세면대 개수	세면대7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용 시설	×
안내시설	점자블록	○
	주출입구 부근의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과 같은 안내시설 설치여부	○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
기타시설	전체 관람석 대비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의 비율	대공연장 1.1% 소공연장 1.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휴게실 내부에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가 마련된 경우만 포함)	○

직원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장애인의 예술회관 이용편의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0%가 부정적으로 답하였으며, 30%는 '보통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외국인의 예술회관 이용 편의성'에 대해서도 '불편하다'는 응답률이 30%로 조사돼,

'노약자, 어린이, 여성'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인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소수자의 시설이용 편의성 (n=20)

(2) 문화향유 기회의 형평성

문화적 소수자들에게도 문화향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1년간 추진한 '소수자 대상 사업'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소수자 대상 사업은 전체사업의 4.2% 수준인 18건으로 나타나 권장기준(5% 이상)에 미달하였으며, 특히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대상 사업'은 추진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소수자를 위한 공연'을 단독으로 기획하는 대신, 일반 공연의 객석 일부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된 차상위 계층,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전·의경 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문화나누미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4>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문화적 소수자 대상 사업 추진실적 (2012년 기준)

(단위 : 건)

구분	전체사업	문화적 소수자 대상 사업				
		계	저소득층 대상 사업	문화소외지역주민 대상 사업	이주노동자/다문화가정 대상 사업	기타 소수자 대상 사업
공연	320	18	0	7	0	11
전시	112	0	0	0	0	0
계	432	18	0	7	0	11

3) 다양성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문화프로그램의 제작과 공연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다양성'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5.5%). 총 5개의 세부지표 중 '시민참여예술사업의 비율'(2점 기준 1.5점)을 제외한 4개 지표항목이 모두 권장기준을 충족하였기 때문이다. 항목별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15>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조사결과 : 다양성

(단위 : 점, %)

평가지표	세 부 지 표		배점	조사결과
문화사업의 다양성	해외문화교류사업		2	2
	공연의 장르별 유형		2	2
	전시의 장르별 유형		2	2
	시민참여예술사업		2	1.5
지역정체성과 문화전통의 확립	지역정체성과 문화전통 계승 및 재창조 사업		3	3
계		점수	11	10.5
		백분율	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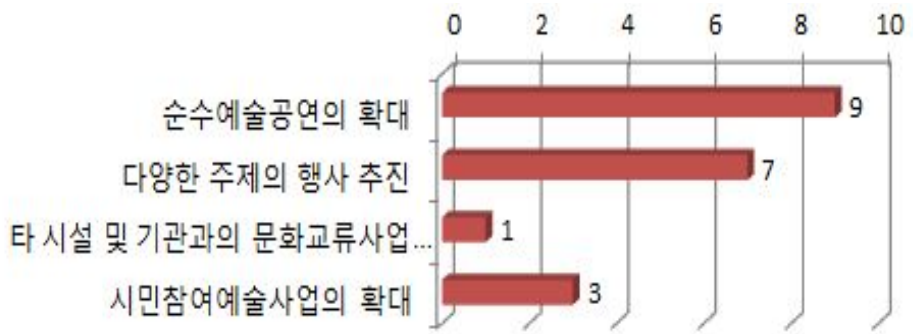
먼저 '해외문화교류사업 추진실적'의 경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지난 2012년에 총 4건의 해외문화교류사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4건의 사업은 각각 프랑스, 상해, 하와이 등 서로 다른 문화권을 교류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권장기준(3개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최행사의 장르 유형'을 조사한 결과 공연과 전시 모두 8개의 장르인 것으로 나타나, '해외문화교류사업'과 마찬가지로 권장기준을 충족하였다. 다만 '시민참여예술사업'의 경우 총 20건(전체사업의 4.6%)으로, 권장기준(5% 이상)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장르별 공연·전시 추진현황 (2012년 기준)

(단위 : 건)

공연		전시	
장르	건수	장르	건수
연극	38	회화·판화	47
뮤지컬	27	도예·공예	3
무용	32	조각	2
발레	1	사진	18
양악	181	건축	1
오페라	2	영상·미디어아트	0
국악	10	설치	0
복합장르	29	서예·서각	14
계	320	복합예술	22
		기타	5
		계	112
총 사업 건수 : 432			

한편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다양성 확보 수준은 다른 영역에 비해 높게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직원들은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순수예술공연을 확대'(45.0%)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3>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다양성을 위한 과제 (n=20)

4) 지속성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지속성' 구현수준은 매우 낮은 편(35.0%)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운영예산의 증감비율'은 +1.8%로 보통 수준이지만, 문화전문인력의 수와 관련된 '전문성 제고' 및 '지역성 제고'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세부지표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17>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조사결과 : 지속성

(단위 : 점, %)

평가지표	세 부 지 표		배점	조사결과
운영예산의 안정성	운영예산		5	2.5
전문성 제고	문화전문인력		3	1
지역성 제고	지역에서 양성된 문화전문인력		2	0
계		점수	10	3.5
		백분율	35.0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2012년도 세출예산은 약 126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약 39.5% 증가하였다[26]. 그러나 시설비 부분을 제외할 시 2012년 예산은 약 65억원으로 2011년 대비 약 1.8% 증가하여, 운영예산의 안정성은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세출예산 현황 (2010년~2012년)

(단위 : 천원, %)

평가지표		2010년	2011년	2012년
총 예산	예산	8,641,401	9,025,008	12,585,165
	증감비율	·	+4.4	+39.5
시설비 제외 예산	예산	7,031,515	6,347,052	6,458,723
	증감비율	·	-9.7	+1.8

자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2011년~2013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총 2명의 문화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직원(38명[27])의 5.3%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천의 타 문예회관과 비교 시 가장 낮은

26) 시립예술단운영경비는 제외하고 계산한 결과이다.

27)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2과 6팀, 시립예술단(4개 장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장 1명, 기획운영과 11명, 예술지원과 26명 등 직원 정원은 총 38명이고, 2013년 6월 기준 현원은 38명이다.

수준이다(<표 4-18> 참조). 또 2명의 문화전문인력 중 지역 내 교육기관에서 문화예술 관련전공을 수료한 인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권장기준(2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표 4-19> 인천광역시 문예회관별 전문인력 현황

(단위 : 명, %)

시설명	직원	전문인력	전체직원 대비 전문인력의 비율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28]	38	2	5.3
중구문화회관	10	3	30.0
인천문화회관	15	5	33.3
남동문화예술회관	12	4	33.3
부평아트센터[29]	17	13	76.5
계양문화회관	14	9	64.3
서구문화회관	18	2	11.1
강화군문예회관	4	2	50.0

자료 : 「2012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재작성 (중구문화회관 추가)

5) 조사결과 종합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문화공공성 조사 결과 '다양성'의 구현수준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등성'과 '지속성'의 구현정도는 다른 영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결과로 나타난 문화공공성 가치구현의 영역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문화공공성의 '개방성' 구현과 관련하여, ①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고, ②'시민대상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③예술회관의 공연·전시 정보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등성' 구현과 관련하여 소수자 배려시설을 법적 기준에 준하여 구비하지 못

28) 「2012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총원 39명, 전문인력 25명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현장조사 결과 총원 38명, 전문인력 2명으로 나타나 수정·작성하였다.
29) 「2012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총원 19명, 전문인력 16명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현장조사 결과 총원 17명, 전문인력 13명으로 나타나 수정·작성하였다.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시민들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편의시설' 부분을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30], 소수자를 위한 배려시설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의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찾아가는 공연/연주회'라는 사업명으로 소수자 대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문화적 소외계층과 무관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31].

'다양성'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사업 대비 '시민참여예술사업'의 비율은 단계적으로 높여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성' 구현과 관련하여 2012년도 기준 예산운영은 보통 수준이었으나, '문화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부평아트센터[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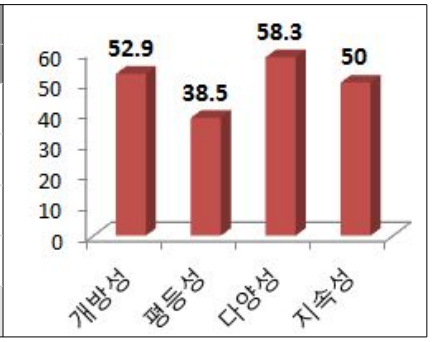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를 적용하여 부평아트센터를 조사한 결과, 아트센터의 문화공공성 구현정도는 낮은 수준(49.9%)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개방성', '다양성', '지속성'은 모두 보통 수준이었지만, '평등성'은 매우 낮은 편(38.5%)으로 조사되었다.

30) 시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편의시설'은 5점 만점 기준 3.4점으로 10개 항목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31) '찾아가는 공연/연주회'만 고려했을 때, 전체 76건의 사업 중 지역 내 중고등학교에 단순 방문하여 공연을 진행한 경우가 41건이며, 저소득층이나 문화소외지역과 무관한 신축 아파트단지를 방문하여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공연을 진행한 경우가 5건으로 집계되었다.
32)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의 영역별 배점은 '개방성' 19점, '평등성' 13점, '다양성' 11점, '지속성' 10점으로 총 53점이다. 그러나 부평아트센터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문예회관이기 때문에 선택지표인 '해외문화교류사업의 개수'와 '문화전통 계승/재창조 사업의 비율'에 할당된 배점은 제외하였다. 또 관련자료가 없는 '목표 이용자 수 대비 달성비율'의 배점도 제외하고 계산하였음을 밝힌다.

<표 4-20> 부평아트센터 조사결과

(단위 : 점, %)

조사영역	배점	조사결과		
		점수	백분율	평가
개방성	17	9.0	52.9	보통
평등성	13	5.0	38.5	매우 낮음
다양성	6	3.5	58.3	보통
지속성	10	5.0	50.0	보통
계	46	22.5	49.9[33]	낮음



1) 개방성

부평아트센터의 '개방성' 구현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보통 수준(52.9%)으로 나타났다. '시설이용 만족도조사', '정보지 발행', 'SNS 업데이트 주기' 등은 매우 우수했으나, 시민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고 홈페이지 방문객 수가 감소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시민참여'를 비롯한 5개 항목이 매우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세부지표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21> 부평아트센터 조사결과 : 개방성

(단위 : 점, %)

평가지표	세 부 지 표		배점	조사결과
사업계획 수립과정의 개방성	운영위원회의 시민참여		2	0
	시민참여 공청회/토론회 개최		2	0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	전체 시설이용자 수		-	-
시민만족도조사의 실시 및 반영	시설이용 만족도조사		2	4
	사업별 만족도조사		2	0
사업 접근성	정보지/소식지/뉴스레터의 발행		2	2
	홈페이지 방문객 수		2	0
	SNS 내 시민 게시글 수		2	0
	SNS의 업데이트 주기		3	3
계		점수	17	9
		백분율	52.9	

33) 4개 영역을 동일한 배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값이다.

먼저 운영위원회에 일반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부평아트센터 운영위원회에 속한 6명의 운영위원은 모두 공무원과 전문가, 문화예술단체 대표 등이었으며, 시민의 참여는 없었다. 또한 시민이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청회/토론회의 경우도 개최실적이 없었다.

'전체 시설이용자 수'의 경우 부평아트센터 내부적으로 설정한 목표치가 없어 조사가 불가능하였다. 단, 부평아트센터는 유료공연 관람객 뿐만 아니라 무료공연 관람객과 야외공연 관람객 등 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관람객 수를 집계하고 있었는데, 2012년도의 전체 관람객 수는 126,824명으로 2011년 대비 약 1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만족도조사의 실시여부를 파악한 결과, 부평아트센터는 연 1회 '시설이용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4]. 또한 만족도조사의 결과를 센터의 운영방향을 설정할 때 반영하고 있어, 권장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평아트센터에서 진행하는 공연·전시의 정보가 시민들에게 다양한 경로로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보지 발행여부와 홈페이지 및 SNS의 활성화 여부를 각각 조사하였다.

부평아트센터는 소식지와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는데, 소식지의 경우 2011년도 1호를 시작으로 2012년도까지 총 4회 발행되었으며, 뉴스레터의 경우 수신동의회원 9,000명을 대상으로 2012년 기준 총 118회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 방문객 수의 경우 2012년도 총 방문객 수는 약 33만명으로 2011년 대비 약 54.0% 감소하였고, SNS에 게시된 시민 작성글의 경우도 2011년 대비 34.9%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홈페이지 및 SNS의 활성화' 항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설문조사에 응답한 시민들은 10개 항목 중 '정보수집의 용이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는데 반해, 직원대상 설문조사의 결과[35]는 '관련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답변이 높게 나와 대조를 이루었다.

---

34) 2012년의 경우 2월 1일부터 18일까지 만족도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대상은 부평아트센터 홈페이지 회원, 수강자, 공연 관람자, 방문객(전체 조사대상 약 500명)이다. 조사는 부평아트센터 방문객을 통한 현장 설문조사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가 병행되었으며, 설문조사 항목은 ①인적사항, ②이용실태, ③프로그램, ④환경 등으로 구성되었다.

35) 부평아트센터 직원들에게 '문화사업 관련정보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n=12)의 67.0%가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25.0%, '아니다'가 8.0%로 집계돼 다른 조사항목에 비해 높은 긍정비율을 보였다.

<표 4-22> 부평아트센터의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활성화 현황

(단위 : 명, 개)

구분	홈페이지					페이스북		
	방문객 수	시민 게시글				계	댓글	좋아요
		계	Q&A	자유게시판	관람평			
2011년	724,323	784	70	597	117	281	63	218
2012년	333,131	649	51	541	57	183	23	160

2) 평등성

부평아트센터의 '평등성' 구현수준을 조사한 결과, 4가지 영역 중 가장 낮은(38.5%)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자 배려시설'은 법적 권장기준에 준하여 구비하고 있었지만, '전체사업 대비 소수자 대상 사업의 비율'은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에서 제시하는 권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세부지표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23> 부평아트센터 조사결과 : 평등성

(단위 : 점, %)

평가지표	세 부 지 표		배점	조사결과
시설이용의 형평성	소수자 배려시설의 구비		5	3
문화향유 기회의 형평성	저소득층 대상 사업		2	0
	문화소외지역주민 대상 사업		2	0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대상 사업		2	1
	기타 문화적 약자 대상 사업		2	1
계		점수	13	5
		백분율	38.5	

장애인, 임산부 등이 예술회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소수자 배려시설 구비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부평아트센터는 모든 배려시설 항목에 대해서 법적 의무기준과 권장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부평아트센터의 소수자 배려시설 구비현황

구분	소 수 자 배 려 시 설	구비현황
매개시설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
내부시설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승강기/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경사로	○
위생시설	장애인용 대변기 개수 : 남자용과 여자용 구분	남8개, 여8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소변기 및 세면대 개수	8개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용 시설	○
안내시설	점자블록	○
	주출입구 부근의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과 같은 안내시설 설치여부	○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
기타시설	전체 관람석 대비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의 비율	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휴게실 내부에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가 마련된 경우만 포함)	○

문화적 소수자들에게도 문화향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부평아트센터에서 1년간 추진한 '소수자 대상 사업'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소수자 대상 사업은 전체사업의 3.6% 수준인 4건으로 나타나 권장기준(5% 이상)에 미달하였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문화소외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은 추진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부평아트센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일반 공연의 객석 일부를 무료로 제공하는 '문화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5> 부평아트센터의 문화적 소수자 대상 사업 추진실적

(단위 : 건)

구분	전체사업	문화적 소수자 대상 사업				
		계	저소득층 대상 사업	문화소외지역주민 대상 사업	이주노동자/다문화가정 대상 사업	기타 소수자 대상 사업
공연	91	4	0	0	2	2
전시	21	0	0	0	0	0
계	112	4	0	0	2	2

3) 다양성[36]

부평아트센터의 '다양성' 구현정도는 보통 수준(58.3%)으로 나타났다. '공연의 장르별 유형 개수'와 '시민참여예술사업'은 권장기준을 충족하거나 근접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전시의 장르별 유형 개수'는 권장기준에 미달하였기 때문이다. 세부지표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26> 부평아트센터 조사결과 : 다양성

(단위 : 점, %)

평가지표	세 부 지 표		배점	조사결과
문화사업의 다양성	공연의 장르별 유형		2	2
	전시의 장르별 유형		2	0
	시민참여예술사업		2	1.5
계		점수	6	3.5
		백분율	58.3	

'개최행사의 장르 유형'을 조사한 결과 공연의 경우 8개 장르로 권장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으나, 전시의 경우 회화·판화, 사진, 복합예술 등 3개 장르에 국한되고 있어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민참여예술사업'의 경우 2012년 한 해 총 6건이 추진되었으며, 이는 전체사업의 약 5.4%에 해당한다.

36) 부평아트센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문예회관이기 때문에 특화지표인 '해외문화교류사업 추진실적'과 '지역정체성과 문화전통 계승 및 재창조 사업의 비율'은 적용하지 않았다.

<표 4-27> 부평아트센터의 장르별 공연·전시 추진현황

(단위 : 건)

공연		전시	
장르	건수	장르	건수
연극	10	회화·판화	10
뮤지컬	16	도예·공예	0
무용	8	조각	0
발레	1	사진	8
양악	32	건축	0
오페라	2	영상·미디어아트	0
국악	2	설치	0
복합장르	20	서예·서각	0
계	91	복합예술	3
		기타	0
		계	21
총 사업 건수 : 112			

한편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부평아트센터의 프로그램 다양성 수준은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어 현장조사결과와 상이했다. 이는 부평아트센터가 공연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양악이나 뮤지컬과 같은 음악공연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4-28> 부평아트센터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결과 (n=200)

(단위 : %, 점)

평가결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5점 평균
전체	18.4	41.4	31.8	8.0	0.7	3.7
교통	23.5	41.0	27.5	7.5	0.5	3.8
건물외관	26.5	55.5	16.0	2.0	0.5	4.1
안내체계	15.5	41.5	34.5	8.0	0.5	3.6
공연수준	14.0	50.5	29.0	6.0	0.5	3.7
여가시간	13.0	42.5	36.0	8.0	0.5	3.6
관람료	12.5	38.5	40.0	7.5	1.5	3.5
정보수집	15.0	34.5	32.0	16.5	2.0	3.4
다양성	16.0	31.5	43.5	9.0	0.0	3.5
편의시설	17.0	32.5	37.5	13.0	0.0	3.5
직원태도	30.5	45.5	21.5	2.0	0.5	4.0

4) 지속성

부평아트센터의 '지속성' 구현수준은 보통(50.0%)이었다. 문화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전문성 제고' 항목은 우수하게 나타났지만, 전년대비 총 예산이 감소하고 지역에서 양성된 문화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운영예산의 안정성'과 '지역성 제고' 항목은 모두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세부지표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29> 부평아트센터 조사결과 : 지속성

(단위 : 점, %)

평가지표	세 부 지 표		배점	조사결과
운영예산의 안정성	운영예산		5	1.2
전문성 제고	문화전문인력		3	3
지역성 제고	지역에서 양성된 문화전문인력		2	0.8
계		점수	10	5.0
		백분율	50.0	

운영예산의 안정성 측면을 살펴보면, 부평아트센터의 2012년도 운영예산은 약 29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약 3.0% 감소하였다. 또 사업비만을 고려하게 되면 2012년도 예산은 약 10억 1천만원으로, 2011년 대비 약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권장기준에 미달하였다.

<표 4-30> 부평아트센터의 운영예산 현황 (2011년/2012년)

(단위 : 천원, %)

평가지표		2011년	2012년
총 예산	예산	2,989,707	2,901,316
	증감비율	·	-3.0%
사업비	예산	1,050,000	1,005,500
	증감비율	·	-4.2%

부평아트센터의 문화전문인력은 총 13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체 직원(17명)의 76.5% 해당하는 수치로 권장기준(50% 이상)을 충족하고 있으며, 인천의 타 문예회관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13명의 문화전문인력 중 인천의

교육기관에서 문화예술 관련전공을 수료한 인원은 1명(전체직원의 5.9%)에 불과해, 권장기준(20% 이상)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조사결과 종합

부평아트센터의 문화공공성 구현정도를 조사한 결과 '개방성', '다양성', '지속성' 측면은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등성' 항목은 다른 영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른 영역별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부평아트센터는 문화공공성의 '개방성' 구현과 관련하여 '전체 시설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아트센터의 공연·전시 정보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등성' 구현과 관련하여 '전체사업 대비 소수자 대상 사업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문화소외지역주민 대상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화소외지역주민들은 '물리적 거리와 시간'때문에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한 받는데, 이는 현재 아트센터에서 추진 중인 '관람석의 일부를 소수자에게 할당하는 방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시의 장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운영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제3절 시사점 :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 조정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부평아트센터를 대상으로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를 실험적용해본 결과, 지표의 내용과 척도 중 일부는 문예회관의 운영현실을 고려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시민만족도조사의 실시 및 반영'과 관련하여 현 지표는 '시설이용 만족도조사'와 '사업별 만족도조사'를 구분하여 따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부평아트센터의 사례처럼 '시설이용 만족도조사'와 '사업별 만족도조사'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설만족도조사'와 '사업만족도조사'의 이원화 체계를 '시민만족도조사'로 통합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② '전년대비 홈페이지 방문객 수의 증감비율'의 경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사례처럼 홈페이지에 방문객 집계기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즉 현 지표는 '방문객 수의 증감비율'만을 고려하여 2점을 배점하고 있는데, 이를 '홈페이지 방문객 수를 집계하고 있다면 1점을 부과하고, 방문객 수가 증가하였다면 1점을 가점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소수자 대상 사업의 비율'과 관련하여 현 지표는, 소수자의 유형을 저소득층, 문화소외지역주민,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기타 문화적 약자 등으로 구분한 뒤, 각 대상별 사업의 건수를 조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소수자 대상 사업이 꼭 '특정 계층을 위해 기획된 개별사업'으로만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부평아트센터의 사례처럼 '기존 공연의 관람석 일부를 소수자 계층에 할당하는 방식'으로도 소수자 지원이 가능하며, 따라서 현 지표에서 간주하는 '소수자 대상 사업'의 범위를 '일부 관람석을 할당하여 초대하는 방식'까지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전체 관람석 중 소수자에게 할당된 좌석비율의 기준'을 설정한 뒤,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업에 한해서만 집계할 필요가 있다.

<표 4-31>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 조정

구분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	수정사항
시민만족도조사의 실시 및 반영	- 시설만족도조사와 사업만족도조사를 구분/집계	- 시설만족도조사와 사업만족도조사를 '시민만족도조사'로 통합
전년대비 홈페이지 방문객 수의 증감비율	- 방문객수 증감비율만으로 2점 배점	- 홈페이지 방문객수 집계 시 1점 - 방문객수 증가 시 +1점
소수자 대상 사업의 비율	- 사업 건수 조사 시 '개별 기획사업'만 집계	- '일부 관람석 할당방식' 추가·포함 - '소수자 할당좌석비율' 기준 명시 (예 : 전체 관람석의 10% 이상)

제5장

인천광역시 문예회관의 문화공공성 제고방안

제1절 개방성 제고방안

제2절 평등성 제고방안

제3절 다양성 제고방안

제4절 지속성 제고방안

제5장 인천광역시 문예회관의 문화공공성 제고방안

제1절 개방성 제고방안

1. 기본방향

1) 시민친화형 시설 도입

문예회관 운영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개방성이다. 시설관리에서 사업추진, 조직 내부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방성이 구현되어야 한다. 문화기반시설은 무엇보다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입지해야 한다. 건물의 외관도 조형성을 갖추어 심미적 감상 가치를 지녀야 하고, 시설 내에서의 동선도 처음 방문하는 관람객이나 외국인들도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게 안내 표지판들이 세심하게 배려되어 있어야 한다.

■ 사례 : 일본 신국립극장(新國立劇場)

도쿄의 시부야(澁谷)에 개관한 일본 신국립극장(新國立劇場)은 관람객 중심의 대표적 사례가 됨직하다. 1997년 10월 개관한 일본 신국립극장은 오페라, 발레, 현대 연극 등 일본 현대 무대예술 거점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극장 건물 안에는 무료로 인터넷과 최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일본에서 가장 맛있기로 소문난 스파게티 체인점, 서점 등이 입지해 있다. 이와 같은 편의시설은 극장에 온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설이기도 하지만 편의시설에 왔던 고객들도 자연스럽게 공연을 관람을 하게 된다.

<그림 5-1> 일본 신국립극장(출처 : wikimedia.org)

2) 시민 참여 제도 도입

운영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의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문예회관은 주민과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위해 건립된 문화기반시설이다. 시설운영에는 일반 시민과 주민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시설의 운영계획을 심의하는 기구에는 문화예술인이나 문화예술단체 대표자들의 전문적인 의견도 필요하지만 일반 시민의 의견도 필요하다. 직업적으로는 주부나 학생, 일반 직장인이 그 대상이 된다. 그렇다고 시민이 소극적인 문화소비자로 한정될 필요는 없다.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슈머의 경우 시민의 관점에서 시설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시민의견 수렴 방법 다양화 방안

시설운영 방향과 관련된 시민의견의 수렴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시민만족도 조사는 자주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문화모니터링 제도를 활용하여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일상적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시설 운영 평가단을 시민들의 자원을 받아 구성하고, 이들이 시설을 활용하고 이용하면서 느꼈던 문제들을 항목화 하고 계량화된 쉬트에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강구하여 문예회관의 지역사회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지역공동체와 협력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체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역 및 주민밀착 경영이 필요하다. 지역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의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의 문예회관격인 공민관을 설립 초기에는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다가 운영권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었는데, 그 이후 회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운영성과가 뚜렷이 개선되었다. 시민참여제도는 운영위원회, 시민위원회 등 시설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민소통 강화

문예회관의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홈페이지나 SNS 같은 미디어를 통해 공연과 행사정보를 서비스하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뉴미디어 등의 정보서비스를 전담하는 직원과 부서가 필요하다.

2.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 시민위원회 구성 및 고객만족도 조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의 개방성 구현은 매우 낮다.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과 소통하는 운영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시민들이 예술회관 운영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조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운영위원회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방법과 별도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고객만족도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만족도 조사는 예술회관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과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때 인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직업별 군·구별 인구비례를 고려하여 실시해야만 이용자의 계층별 거주지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2) 편의시설 확충 및 안내체계 개선

예술회관이 구비하고 있는 편의시설은 카페(컬쳐라운지), 놀이공간, 수유공간이다. 편의시설은 시민대상 설문조사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평가한 항목이다. 편의시설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부속시설의 수준을 넘어, 일본 「신국립극장」처럼 편의공간 때문에 예술회관을 찾아 올 정도의 시설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안내체계의 점검 및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 시설 내부의 안내판이나 안내 자료에 영어를 병기하는 정도가 전부인 수준이다. 노인, 외국인, 장애인 등 다양한 관람객이 예술회관에 방문했을 때 불편함이 없는 안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소통강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시민들의 평가결과가 예술회관이 부족한 점으로 '정보전달'을 들었다. 현재 예술회관의 홈페이지는 메뉴구성, 디자인, 가독성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료관도 내용이 빈약한 편이어서 전면적 개편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 시에는 방문객수가 집계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현재 야외공연 관람객이나 전시 관람객도 집계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간편하게 예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각종 공연/전시의 대부분은 예매대행업체(인터파크 등)를 통해 예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홈페이지의 기능을 보강하여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예술회관의 홍보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온라인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정보수집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50대~70대)를 위해 오프라인 홍보체계의 구축도 필요하다.

3. 부평아트센터

1) 관람객 감소 대책 수립

부평아트센터의 개방성은 보통 수준이다. '시설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다. 또 정보지 발간, SNS 업데이트에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총 관람객은 2011년 대비 10.6% 감소한 126,824명으로 감소된 폭이 크다. 이러한 관람객의 감소는 사업예산의 감소와 관련될 수 있겠으나 문화향유를 확대하려는 정부와 지방의 문화정책과 상반되는 결과이므로 그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2) 홈페이지 방문객 감소 대책 수립

아트센터는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시급히 갖추어야 한다. 아트센터 운영과 사업계획을 놓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는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또 홈페이지 총 방문객 수가 2011년 대비 54% 감소한 것과 SNS 시민 댓글이 34.9% 감소한 것은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등의 온라인 소통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을 제안한다.

<표 5-1> 시설별 개방성 제고방안 요약표

구분	제고방안
기본방향	- 시민친화형시설 도입 - 시민참여제도 도입, 시민평가단 운영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시민위원회 구성 - 고객만족도조사 실시 - 편의시설 확충, 안내체계 개선
부평아트센터	- 관람객 감소 대책 수립 - 홈페이지 이용감소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제2절 평등성 제고방안

1. 기본방향

문화시설은 시민들이 소득수준이나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시설과 공간은 장애인, 노약자, 이주노동자와 외국인과 같은 소수자들이 이용하기에도 편리해야 한다.

위탁 운영되고 있는 대형 공연장은 물론 문예회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관공연의 경우 입장권이 고가여서 서민들은 참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작품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무거워서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사회적, 교육적 계층, 그리고 예술적 소양을 고려한 맞춤형 입장권 정책을 구사하여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2.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 소수자 배려시설 개선

소수자 배려시설을 법적 의무기준 이상으로 보완해야 한다. 영유아용 편의 시설,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보설비, 장애인용 판매대와 음료대등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수자 배려시설에 대한 법적 의무기준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예술회관은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문화기반시설이고 기초자치단체나 다른 유형의 기반시설의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

2) 거주지별 이용자 편중 현상 대책

문화향유의 평등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거주지별 불균등성을 해결해야 한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이용자에 대한 간이설문조사 결과 예술회관의 이용자들의 분포가 남동구와 남구를 중심으로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동별로는 구월동, 주안동, 용현동에 편중도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옹진군이나 강화군 거주자는 전무했으며, 계양구나 중구 거주자의 이용빈도는 극히 낮게 나타났다.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은 문화 사각지역을 중심으로 기획할 것을 제안한다.[37] 지역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군구 문예회관이 연계 협력하여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다.

3)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계발

소수자의 문화향유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계발하여 확대해야 한다. 소수자를 대상별로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여 문화활동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방식을 권장한다.

3. 부평아트센터

부평아트센터의 '평등성' 구현 수준은 문화공공성의 4가지 가치 중 가장 낮은 것(38.5%)으로 조사되었다. 구민들에게 형평성 있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자 배려 시설'을 법적 기준에 맞게 구비한 것을 제외하면 평등성 구현 정도는 훨씬 낮아질 것이다.

37) 2012년의 경우

1) 저소득층 대상 사업 강화

부평구는 인천의 전형적인 구도심으로 산업시설이 지방이나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경제적 활기를 잃고 있어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으며, 인천광역시 군·구 가운데 결혼이민자도 가장 많다. 2012부평문화지표조사 결과 부평구민 중 문화예술 행사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구민이 39%로 나타났으며 참여하였다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축제나 문화유적지 방문과 같은 일회적 참여나 단순한 활동에 그치고 있어 문화적 소외가 깊다는 알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이나 소수자를 위한 문화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트센터는 부평구민의 심각한 문화소외 현상, 단순한 문화 소비자로 남아 있는 현실을 주목하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문화나눔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저소득층과 문화소외지역주민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기획할 것을 제안한다.

2) 문화사랑방 연계사업 강화, 지역편중현상 해소

아트센터 이용고객의 거주지별 편중현상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십정동(13%)과 부평동(24.5%)에 편중되어 있으며 청천동, 부개동, 갈산동 주민의 이용률은 극히 저조하다. 주민 밀착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사랑방'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간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표 5-2> 시설별 평등성 제고방안 요약표

구분	제고방안
기본방향	- 소수자의 시설이용 편의성 증대 - 맞춤형 입장료/관람료 체계 도입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소수자 배려시설 개선 - 지역편중현상 대책 수립 -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계발
부평아트센터	- 저소득층 대상 사업 강화 - 문화사랑방 연계사업 강화, 지역편중현상 대책 수립

제3절 다양성 제고방안

1. 기본방향

1) 지역문화유산 재창조 사업 확대

문화유산은 과거의 문화이지만 문화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화유산을 재창조의 원천으로 삼지 않으면 유물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공공 문예회관은 지역문화 유산을 새로운 컨텐츠로 창조하는 실험실이 되어야 하며 지역문화계의 실험을 지원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2) 기초예술 실험예술 우선 원칙

정부와 지자체가 문화시설 가운데 공연예술을 위한 문예회관에 공적자금을 투자하게 된 것은 공연 예술이 갖은 특성 때문이다. 공연예술은 개별 예술가나 예술집단의 자생력에 의존하기 어렵고, 시장의 취향에 영합하여 상업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기초 예술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정부가 공연예술의 발전을 지원하고 육성하게 되는 것이다. 공공적 지원 하에 공연예술이 발전하게 되면 그 혜택은 문화예술영역 전반으로 그리고 지역사회와 국가로 파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문예회관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민간예술단체나 상업 공연장이 시도하기 힘든 새롭고 도전적인 형식과 내용의 실험 예술의 발표장으로서의 기능도 맡아야 한다. 문예회관에서는 대관 신청 시 기초예술과 실험예술을 우선하는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3) 지역 간 · 문화권 간 교류 강화

문예회관은 국내의 지역과 지역, 나아가 외국 문화와의 교류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문화교류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작품이나 최신의 문화 트렌드를 소개하는 사업, 특정한 국가나 도시와 교류협정을 맺어 지속적인 문화교류사업을 펼치는 사업,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독특한 문화를 소개하는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다만

문화교류 사업은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 시민참여예술(‘오! 인천’) 사례 확대

인천종합예술회관에서 시립예술단과 함께 시도하고 있는 ‘시민참여예술사업’은 지역문화유산을 재창조한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3년도 ‘인천 정명 600년’을 기념하여 공연한 인천시민합창단의 ‘오! 인천’은 규모와 형식, 완성도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정체성’을 제고시키면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재창조하는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 시도하기 힘든 사업이므로, 예술회관의 특화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작된 콘텐츠는 군구 문예회관과 네트워크체계를 확립하여 공유한다면 상호보완적인 결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부평아트센터

1) 장르편중 현상 개선

부평아트센터의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은 보통 수준이다. 개최행사 전체로 보면 8개 이상의 장르가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연 분야에서는 양악(洋樂)이 32건, 뮤지컬이 1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시 분야에서는 회화 10건, 사진 8건 대종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는 다양성을 실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같은 다양성의 부족 현상은 부평구가 타 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평구민들은 부평지역 이외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문화활동의 탈부평화’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기초자치단체의 복합문화센터인 아트센터의 프로그램 빈곤과 장르편중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2) 부평정체성과 문화자원 발굴 재창안

한편 부평구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 시민생활문화 자원을 반영한 재창조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례로 부평은 인천시 10개 군·구 중 결혼 이주자가 가장 많은 자치단체이므로 결혼 이주자를 위한 프로그램, 특히 결혼 이주자들이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부평문화의 특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3> 시설별 다양성 제고방안 요약표

구분	제고방안
기본방향	- 지역문화유산 재창조 사업 확대 - 기초예술 및 실험예술 우선 원칙 - 지역 간·문화권 간 교류 강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시민참여예술 사례 확대
부평아트센터	- 장르 편중현상 개선 - 부평정체성과 문화자원 발굴 및 재창안 시도

제4절 지속성 제고방안

1. 기본방향

1) 전문인력 확충

인력의 확충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문예회관은 공연과 전시를 중심으로 예술작품의 발표와 문화행사가 이뤄지는 복합문화예술시설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에 의해 운영될 때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자치단체에서는 문예회관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최소 인원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비용절감 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공연장 관리와 대관 업무 위주의 소극적 운영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지어놓고 정작 가동은 하지 못하는 셈이니 이런 문예회관은 문화적 '전시물'에 가깝다.

또한 지역의 문화기반 시설이 신규채용 인원 중 일정한 비율을 지역출신 문화전문인력에 할당하여 채용하게 되면 지역문화예술교육을 촉진하는 효과와 지역과 지역의 문화현장에 대한 이해도 높은 인력을 충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안정적 예산 운용

문예회관 운영에서 지속가능성은 공공시설에 대한 정부의 사회적 책임이행 수준을 의미한다. 지방정부는 기반시설의 예산과 인력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점진적 확충될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한다.

문예회관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예산감소가 클 경우 특정한 사업을 축소하거나 전반적으로 사업이 부실하게 될 수 있다. 확보된 예산은 사업비와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전문인력 확충과 전문성 제고 계획수립

예술회관의 전문성이 매우 낮다. 그 근본 원인은 인천시 직영사업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 대부분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개혁전략을 수립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단·중기 목표를 세워야 한다. 우선 관장과 기획담당 직원부터 개방직으로 임용하고 홍보·마케팅과 같은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부터 전문인력으로 대체해나가야 한다. 전문성의 제고는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방안이 우선이지만 문예회관이나 문화행정 관련 공무원의 경우 순환보직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문화전문직으로 전환하여 임용하는 인사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부평아트센터

○ 안정적 예산 확보

부평아트센터의 문화전문 인력은 관장을 포함하여 13명으로 전체직원의 76.5% 수준이다. 이는 권장기준(50%)을 넘어 인천광역시 문화기반시설의 모범이다. 다만 지역에서 양성된 문화전문인력을 채용하려는 노력은 다소 미흡하다. 예산은 사업비 기준 전년 대비 4.2%가 감소되었다. 이 같은 폭의 예산 감소는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부평구와 부평구문화재단은 아트센터의 안정적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표 5-4> 시설별 지속성 제고방안 요약표

구분	제고방안
기본방향	- 전문인력 확충 - 안정적 예산 운용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전문성 제고계획 수립 - 전문인력 확충방안 모색
부평아트센터	- 안정적 예산 확보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광역시 문예회관이 문화공공성의 핵심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확인할 수 있는 문화공공성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된 지표가 시설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그 구현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현장조사, 시민설문조사 등의 과정을 거쳤다. 지금까지 문예회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거나 기준이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각종 실태조사의 통계작성 항목은 투입(input)을 통해 1차적으로 산출해낸 산출물(output)과 이에 따른 결과가 주요한 관심 대상이었다. 이로 인해 시설의 재정자립도와 같은 항목이 조직의 성과를 확인하는 핵심지표처럼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효율성 위주의 평가는 문예회관을 일반 행정조직이나 심지어 영리조직과 동일시하는 오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또한 문예회관의 설립근거라고 할 수 있는 시민 문화향유활동의 제고나 지역 및 문화생태계의 개선과 같은 고유의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단기적 성과나 생산성, 조직의 효율성 등을 과도히 강조함으로써 시민과 지역의 문화적 요구와는 상충되는 결과를 낳을 위험성마저 안고 있어 효과성 중심의 평가지표의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문화공공성의 개념은 모든 시민이 계층, 지역, 성별, 학력, 신체조건, 소속 집단, 종교, 인종 등과 같은 차이와 무관하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보편적 문화권(文化權)을 기초로 재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권이 보장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공공 문화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비롯한 각종 문화 활동 및 자원에 쉽게 접근하여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는 세심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며 창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즉 문화공공성이란 '사회구성원 누구나 편리하고 자유롭게 문화자원과 시설에 접근하여 문화향유의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창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문화공공성의 핵심가치를 개방성, 평등성, 다양성, 지속성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는 선행연구(2012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에서 제시한 문화공공성의 주요 가치(개방성, 안정성, 평등성, 형평성, 다양성, 접근성) 가운데 공통요소가 많은 가치(개방성과 접근성, 평등성과 형평성)들을 통합하여 4개의 평가영역으로 설정한 것이다.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는 4개의 평가영역을 11개의 평가지표와 22개의 세부지표로 구성하여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다.

설정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인천의 대표적 문예회관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부평아트센터의 문화공공성 구현 정도를 예비적으로 조사한 결과 두 시설 모두 설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들이 시설 인근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예산의 변동 폭이 커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경우 다양성은 상당한 수준으로 구현되고 있으나 평등성과 지속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개방성도 '낮은' 수준이었다. 부평아트센터 역시 전체적인 문화공공성 구현 수준은 낮은 편이었다. 개방성과 다양성, 지속성 영역은 '보통' 수준이었으나 평등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시설은 운영계획 수립 시 예비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다음의 <표 6-1>과 같은 시설별 문화공공성 제고방안을 제안하였다.

<표 6-1> 시설별 문화공공성 제고방안

구분	시설별 제고방안		
	기본방향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부평아트센터
개방성	- 시민친화형시설 도입 - 시민참여제도 도입, 시민평가단 운영	- 시민위원회 구성 - 고객만족도조사 실시 - 편의시설 확충, 안내체계 개선	- 관람객 감소 대책 수립 - 홈페이지 이용감소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평등성	- 소수자의 시설이용 편의성 증대 - 맞춤형 입장료/관람료 체계 도입	- 소수자 배려시설 개선 - 지역편중현상 대책 수립 -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계발	- 저소득층 대상 사업 강화 - 문화사랑방 연계사업 강화, 지역편중현상 대책 수립
다양성	- 지역문화유산 재창조 사업 확대 - 기초예술 및 실험예술 우선 원칙 - 지역 간·문화권 간 교류 강화	- 시민참여예술 사례 확대	- 장르 편중현상 개선 - 부평정체성과 문화자원 발굴 및 재창안 시도
지속성	- 전문인력 확충 - 안정적 예산 운용	- 전문성 제고계획 수립 - 전문인력 확충방안 모색	- 안정적 예산 확보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는 향후 추가연구를 통해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정책 및 지원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반화하고 다양한 문화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탄력적 평가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문화기반시설에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책기관은 정부와 지방정부의 문화담당 부서, 지원기관은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문화재단을 비롯한 문화예술 단체들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연구기간과 과제성격상의 제약으로 인해, 그리고 예비조사 대상이 인천지역 내 두 개의 시설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표설정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다. 따라서 본 지표를 실제 시설평가에 적용할 경우, 세부지표의 선택 및 가중치 설정은 해당시설과 협의함으로써 시설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발전단계와 문화정책 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한층 정교한 문화공공성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시급한 것은 문화공공성지표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평등성 지표를 계수화 하여 문화평등성지표와 문화다양성지표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계수는 절대 값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평가 대상의 현황을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표가 갖는 복잡성과 상대성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지표의 검증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매우 편리한 평가기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 설정과정에서 문화공공성지표를 대표할 수 있는 계수의 모델로 소득불평등 상태를 보여주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응용한 '문화균형계수'를 검토해 보았다. 문화균형계수는 문화예술 불평등 상태를 계량화하기 위해 설정된 계수(計數)이다. 즉 문화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계수로 0부터 1사이의 값이 도출되며, 결과 값이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와 같은 문화균형계수로 전환하려면, 문화기반 시설 이용자들의 특성이 1차 변수이지만, 문화기반시설 소재지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가구 소득을 통계 처리한 자료가 필요하다. 균형계수의 산출식은 두 통계자료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각 연산 가능한 값이나 2차원 도형으로 변환한 결과를 비교하여 얻어내는 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문화기반시설 이용에서 나타나는 거주지별 균형성도 계수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균형계수는 문화기반시설 이용자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불균형과 불평등성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문화정책의 과학화를 앞당기기 위해 선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의 다양성은 혁신과 창조의 원천으로서 문화예술 생태계에 지속적인 활력을 보장하면서 전통의 창조적 발전을 가능케하는 요건이기 때문에 부단히 높여나가야 할 가치이다. 그런데 문화예술의 다양성은 문화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세계화 현상으로 인해 고유한 문화나 언어 등이 소멸되거나 특수 문화에 흡수 획일화되는 현상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 이 때문에 문화정체성과 문화다양성은 세계적인 정책의제로 대두하였으며, 2005년 제33회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문화다양성 협약」이 통과되었다. 문화예술의 다양성은 '고유한(특수한) 문화예술이 얼마나 보존 및 유지되고 있는지', '문화예술을 구성하는 장르의 다양성이 유지 및 보존되고 있는

지', 그리고 '기존 문화예술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혁신하려는 새로운 흐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과 같은 요소들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문화시설운영에서 혹은 문화현장에서 확충되고 있는지 아니면 감소되고 있는지를 절대값으로 측정하여 평가한다면 그 의의가 클 것이다.

제2절 정책제언

(1) 인천시의 문화정책을 '문화공공성의 구현' 중심으로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는 2011년, 시민들의 문화향유와 문화창조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적을 명시한 문화정책 로드맵 「민선5기 문화예술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가운데 시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문화헌장의 제정과 그 실현을 점검하는 거버넌스 체계 확립계획은 시민문화자치와 문화공공성 확대라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전향적인 정책으로, 향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었다.

인천광역시의 문화관광체육국도 문화예술 향유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문화수요 추세에 주목하여, 문화소외 극복 등 시민 다수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에 부응하며, 모두가 체감하는 시민 중심의 문화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주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처럼 인천시의 문화정책은 내용적으로 문화공공성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주요 추진과제들도 문화공공성의 핵심가치를 기준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2) 인천의 문예회관은 문화공공성의 주요가치를 시설의 미션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군구 문예회관은 사업계획 수립 시 2013년도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의 예비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핵심가치의 구현을 주요 사업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문화기반시설도 인천시 차원의 실태조사나 평가와 별도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문화공공성의 구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단기적 과제로 편의시설 확충, 시민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소수자 배려시설의 개선 및 문화소외계층 대상 사업의 확대를 제안한다. 부평아트센터는 소수자 대상 사업의 비중 확대, 아트센터 이용자의 동별 편중 현상 해소, 공연·전시 행사 및 사업의 다양화, 지역 문화유산 재창조 등을 현안 과제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3) 문화공공성지표조사와 관련된 공론화가 필요하다.

문화공공성 지표를 문화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표개발의 목적에 대한 문화주체들 간의 공론화 단계가 필요하다. 문화공공성에 대한 학계나 정책기관, 인천시민사회의 인식은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으나, 문화공공성 실현과 관련하여 개발된 지표를 적용한 조사대상 기관이나 시설 운영주체들 간 공감대의 형성은 충분치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적용 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사전논의가 필요하다. 반드시 독자적인 행사일 필요는 없다. 최근 정부의 문화정책 변화와 연관하여 문화기반시설의 사업방향과 평가지표의 변화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4) 문화공공성지표조사의 주기적 실시를 제안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문예회관문화공공성지표는 문예회관이 추구해야 할 문화적 가치의 구현정도를 중심으로 시설운영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공연장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세부지표를 시설 특성에 따라 조정하는 작업을 거친다면 박물관이나 미술관, 도서관, 문화원 등에도 적용 가능한 <문화기반시설문화공공성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가 문화융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문화기본법」의 제정과 '문화향유율 확대', 「국민행복지수」 개발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문화공공성지표는 사업추진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시광역시는 『문화기본계획』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문화공공성 구현을 위한 지표조사를 문화관광체육국의 정책 점검 지표로 설정하여 주기적 실태조사와 지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천문화재단은 4년 주기로 인천문화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사 주기가 길어서 문화정책과 문화환경의 변동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선거를 분기점으로 문화정책의 변화가 따르게 된다.

문화공공성지표조사는 2년 주기 조사가 적절해 보인다. 단체장 임기 시작 직전과 3년차에 실시하게 되면 새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 문화평등성과 다양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계수개발이 필요하다.

문화의 평등성과 다양성은 문화공공성의 중요한 가치로 한층 객관적인 지표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객관성이 보장되는 절대값으로 산출되는 계수형식으로 개발된다면 간결한 방식으로 문화기반시설을 평가할 수 있으며, 정책의 과학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문헌자료

김창수(2012). 인천시 문화전문인력 활동촉진 기본방안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_____(2011a). 인천광역시 문화기반시설 현황과 확충 정책. 인천발전연구원.
_____(2011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발전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김평수(2010). 문화공공성과 저작권 : 저작권강화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류정아(2013). 지역문화 지표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박신의(2009). 문화예술시설에서의 공공성과 경영효율성,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문화예술경영학연구. 2(2). 28-39.
이병량(2011). 문화정책과 공공성.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8(3). 119-146.
이정형·김진욱(2005). AHP분석기법을 이용한 기업참여 문화시설의 공공성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1). 171-180.
이현식(2003).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방식 개선안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이현식·황윤미(2003). 인천의 공공문화시설 무엇이 문제인가.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문화재단(2012). 2012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
정광렬(2003). 공립 문화시설의 민간위탁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허은영(2010). 문화시설 운영 효율성 지표 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현진권(2008). 공공성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 『공공성』, 김세훈·현진권·이준형·김정수·이기호·양현미. 미메시스.

■ 통계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_____(2011).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_____(2010). 2010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부평아트센터 http://www.bpart.kr/
위키미디어 http://www.wikimedia.org/
인천광역시청 http://www.incheon.go.kr/icweb/main/index/index001.jsp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http://art.incheon.go.kr/icweb/main/index/index026.jsp

부 록

부록 1 문화헌장

부록 2 세계인권선언

부록 3 경제적 · 사화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부록 4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부록 5 전문가 및 문예회관 직원의 지표별 적정성 평가 결과

부록 6 실정법에 명시된 소수자 배려시설의 설치기준

부록 7 시민 대상 설문평가 결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부록 8 시민 대상 설문평가 결과 : 부평아트센터

〔부록〕

■ 문화헌장

- 2006년 5월 21일 공표 -

문화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의 기초이다. 문화는 시민 개개인이 삶의 다양한 목표와 염원들을 실현해 나갈 자유로운 활동의 터전이고, 공동체를 묶어주는 공감과 정체성의 바탕이며,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 의미, 아름다움의 원천이다.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의 전 영역에서 인간의 품위와 생명의 존엄을 모든 가치의 중심에 두는 사람의 사회를 열게 하며, 시민 생활의 질을 높여 모든 이가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한다.

보존할 것을 보존하고 바꿀 것을 바꾸며 성찰과 희망을 버무려 과거와 미래가 현재의 시간대에 만나게 하는 것이 문화의 역동성이다. 우리가 전통의 가장 좋은 부분들을 이어받고 새로운 변화의 요청들을 슬기롭게 수용하여 미래를 향한 열린 사회, 정의로운 사회, 아름답고 넉넉한 사회를 만들어 갈 창조적 동력은 문화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이가 다 같이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들을 확인하고 공동체의 초석이 될 문화적 가치들을 찾아내며 사회 발전의 문화적 원칙들을 천명하여 인간다운 삶의 토대를 다지고자 2006년 5월 이 헌장을 공표한다.

1. (기본 권리) 문화적 권리는 시민의 기본 권리이다. 모든 시민은 부당한 검열, 감시, 위협에 시달리지 않을 권리, 양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권리, 이 땅 어디에서나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

2. (창조, 참여, 향유의 평등한 권리) 문화적 권리는 시민의 평등한 권리이다. 모든 시민은 계층, 지역, 성별, 학벌, 신체 조건, 소속집단, 종교, 인종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삶의 질을 높일 창조적 문화 환경과 여가를 누릴 권리, 문화 교육과 예술 교육을 받을 권리, 평생 학습을 추구하여 스스로 기회를 창출할 권리, 모든 분야의 지식 정보와 전달 매체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자유로운 표현 수단을 가질 권리, 자신의 문화적 삶에 영향을 주는 공공 정책의 결정과 그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3. (공동체의 문화적 토대) 사회 공동체는 더불어 사는 삶의 토대가 될 기본적인 문화적 가치들을 늘 확인하고 존중해야 한다.

(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문화적 가치들에는 사람과 생명의 존엄, 평화와 관용, 이웃을 향한 배려와 선의, 공정성과 연대, 자연과의 상생이 포함된다.

(나) 아름답고 선한 것의 존중, 공적 가치의 옹호, 역사적 기억과 경험의 공유, 옳고 그름에 대한 이성적 판단과 같은 문화적 능력도 공동체를 묶어줄 시민적 덕목의 원천이고 상호 신뢰, 협력, 유대의 기초이다.

4. (다양성의 원칙) 문화 다양성은 개인적 집단적 정체성과 자주성의 토대이고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다원성의 원리이며 평화와 공존의 기틀이다. 시민은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를 생산하고 가치를 표현하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가치, 이념, 관습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순종을 강요받지 않는다. 시민은 나라 안팎의 다양한 문화들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여 세계의 문화 다양성과 평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5.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권) 사회적 경제적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누구도 뒤처지거나 억눌리는 일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창조적인 문화 환경 속에서 평화, 정의, 상호 존중, 이해, 나눔의 정신을 가진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정신적 신체적 장애인은 그 존엄성의 보장과 자립의 촉진,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개인적 발전을 기하는 데 필요한 문화적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

(다) 불우한 환경의 여성, 노약자, 고아, 독거노인, 혼혈인,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 경제적 소외의 조건 속에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그 생활수준을 개선하고 삶의 품위를 높이기 위한 문화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라) 외국인, 이주민,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언어적, 민족적 소수자와 소수 집단은 이 땅 어디에서나 시민과 동등한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향유하고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할 때에도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마) 성적 소수자를 포함한 문화적 종교적 소수자와 소수집단은 자기 의사에 반하는 문화 정체성을 강요받지 않는다.

6. (문화유산 보존의 원칙) 민족의 경험과 염원이 담긴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역사 유적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이의 공유 자산이고 민족적 정체성의 바탕이며, 훼손할 수 없는 인류 문화유산의 일부이다. 전통문화유산과 역사 유적은 온전하고 아름답게 보전되고 민족의 창조적 업적에 대한 존경과 애착을 고취할 수 있도록 모든 이에 개방되어 새로운 문화 창조와 문화 발전의 기반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문화적으로 중요한 자연유산과 고유의 생태적 가치들도 넓은 의미의 문화유산에 포함된다.

7. (지역 문화 창달의 원칙) 지역 문화는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는 활력의 원천이며 지역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정체성의 토대이다. 지역 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일은 주민의 자주적 참여와 주민 자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지역 주민은 자기 고장의 언어, 민속, 전통 같은 고유의 표현 형식들을 포함한 자생적 문화 자원들을 보존하고 문화 발전에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8. (예술과 학문의 자유 원칙) 예술과 학문은 창조와 혁신의 원천이며 사회의 지적, 감성적, 윤리적 발전의 토대이다. 시민은 누구나 그 능력과 재능에 따라 예술 창작과 학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가 이룩한 창조적 성과는 정당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예술과 학문은 과도한 상업주의와 이념적 독선의 폐해로부터

보호되고 표현, 사상, 탐구의 적극적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시민은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발전과 응용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9. (민주주의의 문화적 토대) 민주 사회를 튼튼히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데는 정치, 경제, 사회를 비롯한 시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의 원칙, 제도, 가치를 존중하고 함양하는 문화적 토양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유, 평등, 정의, 자율 및 연대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고 발전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힘써 다져나가야 하며, 주요 국가 정책에서 민주주의 문화의 기조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10. (경제 발전의 문화적 목표) 문화는 경제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임과 동시에 경제 발전의 궁극적 목표이다. 경제 발전과 번영은 언제나 인간답고 품위 있는 삶의 실현이라는 문화적 목표를 지향해야 하며, 그 목표로부터 지속 가능한 발전의 동력을 얻어내어야 한다.

11. (문화산업의 균형 원칙) 문화산업은 산업적 활동임과 동시에 시민의 정신생활과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활동이다. 문화산업은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 사이의 적절한 균형 속에서 시민의 문화 생활 수준을 높이고 정신적 발전을 도우며 문화의 국제 교류를 통해 나라와 나라, 국민과 국민들 사이의 상호 존중과 이해, 세계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의 문화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시장 경쟁력의 열세에 놓인 문화산업 분야들이나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예외적 분야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12. (국가의 책무)

(가) 문화 권리 보장의 책무 - 국가는 이 헌장에 천명된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세우고 실시할 의무가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공원을 비롯한 공공의 문화기반시설들을 부단히 확충하고 봉사

체제를 강화하여 문화의 공공성과 문화 복지의 수준을 높이고, 시민의 생활 환경과 활동 공간을 문화의 관점에서 개선하며 법률과 제도에도 늘 문화적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

(나) 문화 활동 지원의 책무 - 시민의 문화적 능력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시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시민적 역량의 기초이며 행복한 삶의 토대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 개개인과 민간 단체들이 전개하고자 하는 교육, 자기계발, 창작 등의 문화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며, 지역 간 문화 발전의 격차를 힘써 줄여나가야 한다.

(다) 제휴 협력의 원칙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간의 창의적 제안을 환영하고 존중하며, 시민의 문화적 삶에 관련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에는 민간단체들과의 제ㅁ휴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13. (실행의 약속)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헌장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재정적 조치와 그 밖의 구체적이고 유효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실행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시장의 영역도 이 헌장이 천명하는 문화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 세계인권선언

-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 -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채택일 1966. 12. 16 / 발효일 1976. 1. 3 / 대한민국 적용일 1990. 7. 10 -

제15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a)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b)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c)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그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포함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적 접촉의 장려와 발전 및 과학과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이 초래됨을 인정한다.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 2001년 11월 2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 -

(문화 다양성과 인권)

제4조 문화 다양성을 보장하는 인권

문화 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윤리적으로 의무이며,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과 뗄 수 없는 것이다.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실천은 특히, 소수 민족과 원주민들의 권리를 포함한다. 누구도 국제법으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데 문화 다양성을 이용할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문화 다양성을 위한 환경으로서의 문화권

문화권은 인권을 구성하는 데 뺄 수 없으며, 보편적이고 개인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요소이다. 창의적 다양성이 번성하려면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경제·사회·문화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제13조 및 제15조에 명시된 문화권을 완전하게 실천해야 한다. 모든 이는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특히, 모국어로 자기 작품을 창조하고 배포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문화 다양성을 전적으로 존중하게끔 질 좋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인권과 기본 자유를 존중하면서 그 바탕 위에 자신이 선택한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고, 문화적 실천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모든 이를 위한 문화 다양성

문자와 이미지로 된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동시에, 모든 문화가 자신을 표현하고 알릴 수 있게 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매체 다원주의; 다언어주의; 디지털 형식을 포함한 예술과 과학적, 기술적 지식에 대한 동등한 접근; 표현과 배포를 위한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문화의 가능성은 문화 다양성을 위한 보장이다.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

제7조 창의성의 원천으로서의 문화유산

창조는 문화적 전통에 의존하는 동시에, 다른 문화와 접촉하면서 풍성해 진다. 이 이유로 모든 유형의 유산을 보존하고 고양하며 인간의 경험과 염원의 기록으로서 미래 세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창의성을 진작하고 진정한 문화 간 대화를 고무할 수 있을 것이다.

제8조 특정한 유형으로서의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

오늘날 창조와 혁신의 거대한 가능성을 연 경제와 기술의 변화 시기를 맞아 작가와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인식, 정체성, 가치, 의미의 척도로서, 단순한 상품이나 소비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에 비춰 창작품 공급의 다양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9조 창의성의 촉매로서의 문화정책

사상과 작품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동시에, 문화 정책은 지역과 세계 차원에서 강력한 수단인 문화 산업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배포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각 국가는 국제적인 의무를 지키며, 운영적 지원이든 적절한 규제든 적합한 수단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규정하고 실천해야 한다.

■ 전문가 및 문예회관 직원의 지표별 적정성 평가결과

관심 영역	평가지표	세 부 지 표	배점(10점 만점)						
			A (전문가)	B (전문가)	C (전문가)	D (전문가)	E (직원)	F (직원)	평균
운영	사업계획 수립과정의 개방성	운영위원회에 시민(지역문화예술인, 전문가)이 참여하고 있는 비율	10	5	7	8	8	5	7.17
		시민 및 시민단체나 지역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토론회의 연중 개최 횟수	5	9	7	5	4	5	5.83
	운영지원 예산의 안정성	전년대비 시설 총 운영예산의 증감비율	10	9	9	5	8	9	8.33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	전년대비 전체 시설이용자 수의 증감비율	10	9	5	5	8	8	7.50
	시민만족도 조사 실시 및 반영	시설이용 만족도 조사의 연중 실시 횟수 및 조사결과의 반영 여부	10	8	6	10	6	9	8.17
		사업별 만족도 조사의 연중 실시 횟수 및 조사결과의 반영 여부	8	8	8	10	6	9	8.17
	지역성 제고	시설 내 전체 문화전문인력 규모 대비 지역에서 양성된 문화전문인력의 비율	10	10	5	8	5	5	7.17
시설	시설 접근성	시설에서 도보 5분 이내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의 종류	7	7	6	8	6	8	7.00
	시설이용의 형평성	소수자 배려시설의 구비기준 충족 여부	10	10	6	8	8	8	8.33
사업	문화향유 기회의 형평성	문화소외계층 대상 지원사업의 종류	10	7	7	8	8	5	7.50
		전체사업 대비 문화소외계층 대상 지원사업의 비율	7	9	7	8	6	7	7.33
		전년대비 연령별 균형지수의 증감비율	7	7	5	5	6	7	6.17
		전년대비 소득별 균형지수의 증감비율	7	7	5	5	6	5	5.83
	사업 접근성	정보지/소식지의 연중 발행 횟수	10	5	6	5	6	7	6.50
		홈페이지 전담인력의 배치 여부	8	5	6	5	8	7	6.50
		홈페이지 내 시민의견 게시판(Q&A 등)의 응답률(최초 게시글 이후 3일 이내의 피드백 건수만 포함)	8	8	6	8	2	9	6.83
		전년대비 홈페이지 방문객 수의 증감비율	7	8	7	8	8	7	7.50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내 전년대비 시민 게시글 수의 증감비율	8	5	7	8	8	5	6.83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의 업데이트 주기	10	9	7	8	8	7	8.17
	문화사업의 다양성	해외문화교류사업의 문화권별 추진실적	7	7	7	3	2	4	5.00
		해외문화교류사업의 교류방식별 추진실적	7	7	8	5	2	4	5.50
		해외문화교류사업의 연중 추진 건수	8	5	8	3	2	4	5.00
	지역정체성과 문화전통	전체사업 대비 '지역정체성과 문화전통 계승 및 재창조 사업'의 비율	10	10	10	5	0	5	6.67
배 점 평 균									0.00

■ 실정법에 명시된 소수자 배려시설의 설치기준

편의시설 \ 대상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전시장	세부기준
매개시설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의무	의무	·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에 설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의무	의무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 제외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의무	의무	· 턱 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내부시설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의무	의무	· 주출입구에 설치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의무	의무	·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설치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승강기/에스컬레이터/휠체어 리프트/경사로	의무	의무	· 건출물 내 1곳 이상에 설치
위생시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의무	의무	·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 설치 ·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소변기 및 세면대 설치 ·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용 시설 설치
안내시설	점자블록	의무	권장	·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설치
	유도·안내설비	의무	의무	·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기타 유도신호장치 중 1개 이상 설치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	의무	권장	·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설치
기타시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열람석	의무	권장	·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 이상 설치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의무	권장	·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 규격 및 부착물 등 고려하여 설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권장	권장	· 휴게시설 내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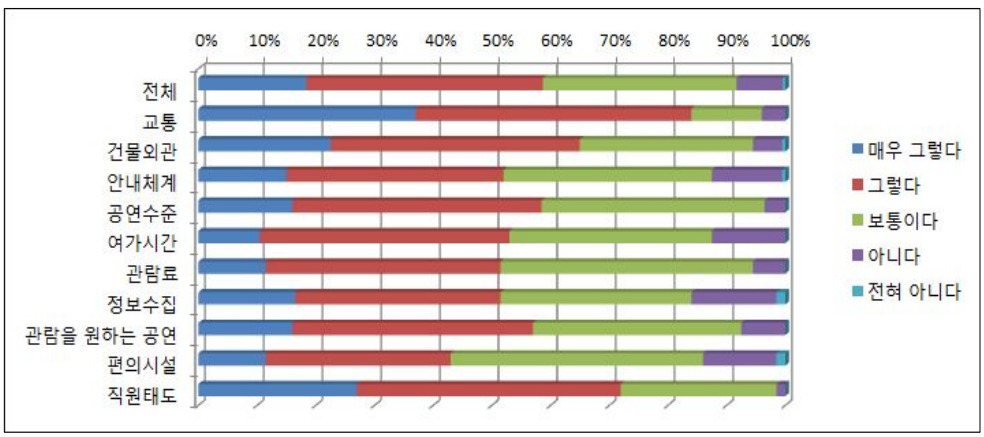
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시민 대상 설문평가 결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평가결과 종합 (n=200)

단위 : %, 점

평가결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5점 평균
전체	18.4	40.4	33.0	7.9	0.4	3.7
교통	37.0	47.0	12.0	4.0	0.0	4.2
건물외관	22.5	42.5	29.5	5.0	0.5	3.8
안내체계	15.0	37.0	35.5	12.0	0.5	3.5
공연수준	16.0	42.5	38.0	3.5	0.0	3.7
여가시간	10.5	42.5	34.5	12.5	0.0	3.5
관람료	11.5	40.0	43.0	5.5	0.0	3.6
정보수집	16.5	35.0	32.5	14.5	1.5	3.5
관람을 원하는 공연	16.0	41.0	35.5	7.5	0.0	3.7
편의시설	11.5	31.5	43.0	12.5	1.5	3.4
직원태도	27.0	45.0	26.5	1.5	0.0	4.0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교통이 편리하다.” (n=200)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5점 평균
전 체		100.0(200)	37.0	47.0	12.0	4.0	0.0	4.2
연령	10대	14.0(28)	35.7	42.9	21.4	0.0	0.0	4.1
	20대	35.0(70)	37.1	50.0	7.1	5.7	0.0	4.2
	30대	14.0(29)	34.5	48.3	13.8	3.4	0.0	4.1
	40대	21.0(43)	32.6	51.2	9.3	7.0	0.0	4.1
	50대	9.0(17)	47.1	41.2	11.8	0.0	0.0	4.4
	60대	5.0(10)	40.0	30.0	30.0	0.0	0.0	4.1
	70대	2.0(3)	66.7	33.3	0.0	0.0	0.0	4.7
거주지 (구)	중구	3.0(5)	20.0	60.0	20.0	0.0	0.0	4.0
	동구	2.0(4)	0.0	100.0	0.0	0.0	0.0	4.0
	남구	26.0(53)	35.8	47.2	15.1	1.9	0.0	4.2
	연수구	13.0(26)	61.5	30.8	7.7	0.0	0.0	4.5
	남동구	30.0(59)	40.7	44.1	10.2	5.1	0.0	4.2
	부평구	12.0(24)	20.8	54.2	25.0	0.0	0.0	4.0
	계양구	5.0(11)	54.5	36.4	9.1	0.0	0.0	4.5
	서구	9.0(18)	16.7	61.1	0.0	22.2	0.0	3.7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건물외관은 편안한 느낌을 준다.” (n=200)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5점 평균
전 체		100.0(200)	22.5	42.5	29.5	5.0	0.5	3.8
연령	10대	14.0(28)	32.1	39.3	21.4	3.6	3.6	3.9
	20대	35.0(70)	20.0	38.6	34.3	7.1	0.0	3.7
	30대	14.0(29)	13.8	51.7	27.6	6.9	0.0	3.7
	40대	21.0(43)	25.6	51.2	23.3	0.0	0.0	4.0
	50대	9.0(17)	23.5	23.5	41.2	11.8	0.0	3.6
	60대	5.0(10)	20.0	60.0	20.0	0.0	0.0	4.0
	70대	2.0(3)	33.3	0.0	66.7	0.0	0.0	3.7
거주지 (구)	중구	3.0(5)	20.0	60.0	20.0	0.0	0.0	4.0
	동구	2.0(4)	0.0	25.0	50.0	25.0	0.0	3.0
	남구	26.0(53)	20.8	41.5	32.1	5.7	0.0	3.8
	연수구	13.0(26)	34.6	46.2	19.2	0.0	0.0	4.2
	남동구	30.0(59)	25.4	42.4	28.8	3.4	0.0	3.9
	부평구	12.0(24)	29.2	41.7	25.0	4.2	0.0	4.0
	계양구	5.0(11)	0.0	72.7	27.3	0.0	0.0	3.7
	서구	9.0(18)	11.1	22.2	44.4	16.7	5.6	3.2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안내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n=200)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5점 평균
전 체		100.0(200)	15.0	37.0	35.5	12.0	0.5	3.5
연령	10대	14.0(28)	25.0	39.3	32.1	3.6	0.0	3.9
	20대	35.0(70)	8.6	34.3	41.4	14.3	1.4	3.3
	30대	14.0(29)	13.8	48.3	31.0	6.9	0.0	3.7
	40대	21.0(43)	18.6	32.6	44.2	4.7	0.0	3.7
	50대	9.0(17)	11.8	41.2	23.5	23.5	0.0	3.4
	60대	5.0(10)	30.0	30.0	10.0	30.0	0.0	3.6
	70대	2.0(3)	0.0	33.3	0.0	66.7	0.0	2.7
거주지 (구)	중구	3.0(5)	0.0	20.0	80.0	0.0	0.0	3.2
	동구	2.0(4)	25.0	25.0	50.0	0.0	0.0	3.8
	남구	26.0(53)	13.2	35.8	34.0	17.0	0.0	3.5
	연수구	13.0(26)	38.5	30.8	30.8	0.0	0.0	4.1
	남동구	30.0(59)	13.6	45.8	27.1	13.6	0.0	3.6
	부평구	12.0(24)	16.7	25.0	45.8	12.5	0.0	3.5
	계양구	5.0(11)	63.6	27.3	9.1	0.0	0.0	3.5
	서구	9.0(18)	0.0	27.8	50.0	16.7	5.6	3.0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공연 및 전시 수준은 적절하다.” (n=200)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5점 평균
전 체		100.0(200)	16.0	42.5	38.0	3.5	0.0	3.7
연령	10대	14.0(28)	32.1	46.4	21.4	0.0	0.0	4.1
	20대	35.0(70)	14.3	41.4	42.9	1.4	0.0	3.7
	30대	14.0(29)	6.9	37.9	51.7	3.4	0.0	3.5
	40대	21.0(43)	18.6	51.2	20.9	9.3	0.0	3.8
	50대	9.0(17)	5.9	35.3	52.9	5.9	0.0	3.4
	60대	5.0(10)	20.0	20.0	60.0	0.0	0.0	3.6
	70대	2.0(3)	0.0	66.7	33.3	0.0	0.0	3.7
거주지 (구)	중구	3.0(5)	20.0	40.0	40.0	0.0	0.0	3.8
	동구	2.0(4)	25.0	25.0	50.0	0.0	0.0	3.8
	남구	26.0(53)	5.7	49.1	41.5	3.8	0.0	3.6
	연수구	13.0(26)	34.6	38.5	19.2	7.7	0.0	4.0
	남동구	30.0(59)	20.3	37.3	37.3	5.1	0.0	3.7
	부평구	12.0(24)	12.5	37.5	50.0	0.0	0.0	3.6
	계양구	5.0(11)	9.1	54.5	36.4	0.0	0.0	3.7
	서구	9.0(18)	11.1	50.0	38.9	0.0	0.0	3.7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공연 및 전시 시간은 나의 여가시간과 잘 맞는다.” (n=200)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5점 평균
전 체		100.0(200)	10.5	42.5	34.5	12.5	0.0	3.5
연령	10대	14.0(28)	25.0	42.9	25.0	7.1	0.0	3.9
	20대	35.0(70)	8.6	38.6	38.6	14.3	0.0	3.4
	30대	14.0(29)	10.3	34.5	37.9	17.2	0.0	3.4
	40대	21.0(43)	2.3	51.2	41.9	4.7	0.0	3.5
	50대	9.0(17)	5.9	64.7	11.8	17.6	0.0	3.6
	60대	5.0(10)	30.0	30.0	20.0	20.0	0.0	3.7
	70대	2.0(3)	0.0	0.0	66.7	33.3	0.0	2.7
거주지 (구)	중구	3.0(5)	0.0	40.0	40.0	20.0	0.0	3.2
	동구	2.0(4)	25.0	50.0	0.0	25.0	0.0	3.8
	남구	26.0(53)	5.7	56.6	30.2	7.5	0.0	3.6
	연수구	13.0(26)	15.4	23.1	42.3	19.2	0.0	3.3
	남동구	30.0(59)	11.9	39.0	39.0	10.2	0.0	3.5
	부평구	12.0(24)	8.3	45.8	33.3	12.5	0.0	3.5
	계양구	5.0(11)	9.1	45.5	27.3	18.2	0.0	3.5
	서구	9.0(18)	16.7	33.3	33.3	16.7	0.0	3.5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관람료는 적절하다.” (n=200)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5점 평균
전 체		100.0(200)	11.5	40.0	43.0	5.5	0.0	3.6
연령	10대	14.0(28)	25.0	42.9	32.1	0.0	0.0	3.9
	20대	35.0(70)	8.6	41.4	41.4	8.6	0.0	3.5
	30대	14.0(29)	10.3	34.5	44.8	10.3	0.0	3.4
	40대	21.0(43)	7.0	46.5	44.2	2.3	0.0	3.6
	50대	9.0(17)	17.6	29.4	52.9	0.0	0.0	3.6
	60대	5.0(10)	10.0	30.0	50.0	10.0	0.0	3.4
	70대	2.0(3)	0.0	33.3	66.7	0.0	0.0	3.3
거주지 (구)	중구	3.0(5)	20.0	20.0	60.0	0.0	0.0	3.6
	동구	2.0(4)	0.0	50.0	25.0	25.0	0.0	3.3
	남구	26.0(53)	7.5	43.4	43.4	5.7	0.0	3.5
	연수구	13.0(26)	23.1	23.1	38.5	15.4	0.0	3.5
	남동구	30.0(59)	10.2	45.8	42.4	1.7	0.0	3.6
	부평구	12.0(24)	12.5	33.3	50.0	4.2	0.0	3.5
	계양구	5.0(11)	9.1	45.5	45.5	0.0	0.0	3.6
	서구	9.0(18)	11.1	44.4	38.9	5.6	0.0	3.6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공연 및 전시 관련정보는 손쉽게 얻을 수 있다.” (n=200)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5점 평균
전 체		100.0(200)	16.5	35.0	32.5	14.5	1.5	3.5
연령	10대	14.0(28)	35.7	35.7	25.0	3.6	0.0	4.0
	20대	35.0(70)	12.9	37.1	31.4	15.7	2.9	3.4
	30대	14.0(29)	10.3	41.4	31.0	17.2	0.0	3.7
	40대	21.0(43)	14.0	39.5	32.6	14.0	0.0	3.5
	50대	9.0(17)	17.6	23.5	35.3	23.5	0.0	3.4
	60대	5.0(10)	20.0	0.0	60.0	20.0	0.0	3.2
	70대	2.0(3)	0.0	33.3	33.3	0.0	33.3	2.7
거주지 (구)	중구	3.0(5)	0.0	20.0	60.0	20.0	0.0	3.0
	동구	2.0(4)	0.0	50.0	50.0	0.0	0.0	3.5
	남구	26.0(53)	13.2	34.0	39.6	13.2	0.0	3.5
	연수구	13.0(26)	26.9	19.2	30.8	15.4	7.7	3.4
	남동구	30.0(59)	18.6	39.0	22.0	18.6	1.7	3.5
	부평구	12.0(24)	16.7	29.2	45.8	8.3	0.0	3.5
	계양구	5.0(11)	9.1	45.5	36.4	9.1	0.0	3.5
	서구	9.0(18)	16.7	50.0	16.7	16.7	0.0	3.7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공연 및 전시 중 관람하고 싶은 것이 많다.” (n=200)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5점 평균
전 체		100.0(200)	16.0	41.0	35.5	7.5	0.0	3.5
연령	10대	14.0(28)	42.9	39.3	17.9	0.0	0.0	4.0
	20대	35.0(70)	12.9	32.9	44.3	10.0	0.0	3.4
	30대	14.0(29)	0.0	44.8	48.3	6.9	0.0	3.4
	40대	21.0(43)	11.6	58.1	27.9	2.3	0.0	3.5
	50대	9.0(17)	23.5	29.4	29.4	17.6	0.0	3.5
	60대	5.0(10)	20.0	30.0	40.0	10.0	0.0	3.2
	70대	2.0(3)	0.0	66.7	0.0	33.3	0.0	2.7
거주지 (구)	중구	3.0(5)	0.0	20.0	80.0	0.0	0.0	3.0
	동구	2.0(4)	0.0	50.0	25.0	25.0	0.0	3.5
	남구	26.0(53)	13.2	43.4	37.7	5.7	0.0	3.5
	연수구	13.0(26)	26.9	38.5	26.9	7.7	0.0	3.4
	남동구	30.0(59)	18.6	39.0	33.9	8.5	0.0	3.5
	부평구	12.0(24)	16.7	45.8	33.3	4.2	0.0	3.5
	계양구	5.0(11)	18.2	36.4	36.4	9.1	0.0	3.5
	서구	9.0(18)	5.6	44.4	38.9	11.1	0.0	3.7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n=200)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5점 평균
전 체		100.0(200)	11.5	31.5	43.0	12.5	1.5	3.4
연령	10대	14.0(28)	32.1	25.0	35.7	7.1	0.0	3.8
	20대	35.0(70)	8.6	31.4	50.0	10.0	0.0	3.4
	30대	14.0(29)	0.0	24.1	58.6	17.2	0.0	3.1
	40대	21.0(43)	4.7	46.5	37.2	7.0	4.7	3.4
	50대	9.0(17)	17.6	35.3	23.5	17.6	5.9	3.4
	60대	5.0(10)	30.0	10.0	20.0	40.0	0.0	3.3
	70대	2.0(3)	0.0	0.0	66.7	33.3	0.0	2.7
거주지 (구)	중구	3.0(5)	0.0	0.0	80.0	20.0	0.0	2.8
	동구	2.0(4)	0.0	75.0	25.0	0.0	0.0	3.8
	남구	26.0(53)	9.4	34.0	41.5	11.3	3.8	3.3
	연수구	13.0(26)	23.1	50.0	11.5	15.4	0.0	3.8
	남동구	30.0(59)	10.2	27.1	49.2	11.9	1.7	3.3
	부평구	12.0(24)	8.3	37.5	41.7	12.5	0.0	3.4
	계양구	5.0(11)	27.3	9.1	45.5	18.2	0.0	3.5
	서구	9.0(18)	5.6	16.7	66.7	11.1	0.0	3.2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직원들의 태도가 친절하다.” (n=200)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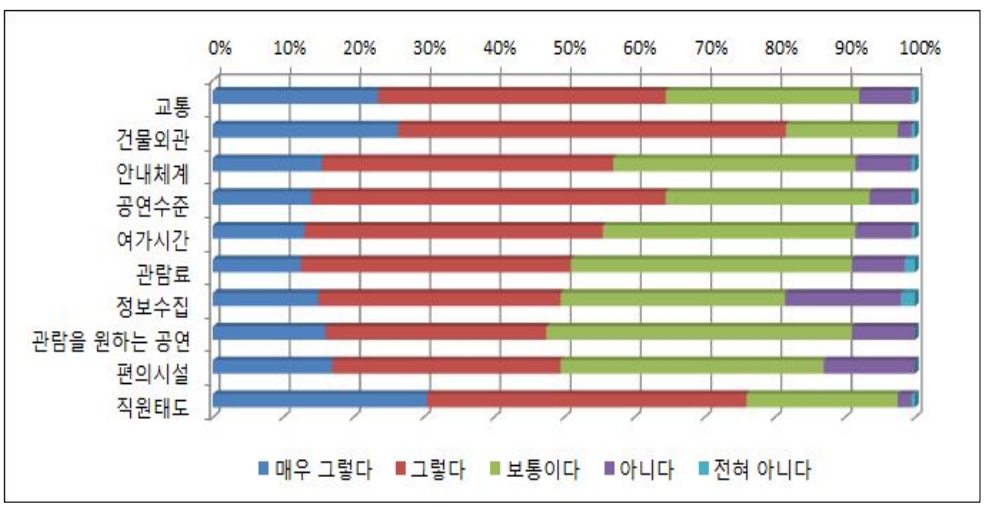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5점 평균
전 체		100.0(200)	27.0	45.0	26.5	1.5	0.0	3.4
연령	10대	14.0(28)	50.0	42.9	7.1	0.0	0.0	3.8
	20대	35.0(70)	22.9	45.7	31.4	0.0	0.0	3.4
	30대	14.0(29)	17.2	41.4	41.4	0.0	0.0	3.1
	40대	21.0(43)	23.3	55.8	18.6	2.3	0.0	3.4
	50대	9.0(17)	35.3	35.3	29.4	0.0	0.0	3.4
	60대	5.0(10)	30.0	30.0	20.0	20.0	0.0	3.3
	70대	2.0(3)	0.0	33.3	66.7	0.0	0.0	2.7
거주지 (구)	중구	3.0(5)	0.0	40.0	60.0	0.0	0.0	2.8
	동구	2.0(4)	0.0	75.0	25.0	0.0	0.0	3.8
	남구	26.0(53)	30.2	45.3	22.6	1.9	0.0	3.3
	연수구	13.0(26)	46.2	38.5	15.4	0.0	0.0	3.8
	남동구	30.0(59)	22.0	47.5	28.8	1.7	0.0	3.3
	부평구	12.0(24)	16.7	45.8	33.3	4.2	0.0	3.4
	계양구	5.0(11)	45.5	36.4	18.2	0.0	0.0	3.5
	서구	9.0(18)	22.2	44.4	33.3	0.0	0.0	3.2

■ 시민 대상 설문평가 결과 : 부평아트센터

○ 평가결과 종합 (n=200)

단위 : %, 점

평가결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5점 평균
전체	18.4	41.4	31.8	8.0	0.7	3.7
교통	23.5	41.0	27.5	7.5	0.5	3.8
건물외관	26.5	55.5	16.0	2.0	0.5	4.1
안내체계	15.5	41.5	34.5	8.0	0.5	3.6
공연수준	14.0	50.5	29.0	6.0	0.5	3.7
여가시간	13.0	42.5	36.0	8.0	0.5	3.6
관람료	12.5	38.5	40.0	7.5	1.5	3.5
정보수집	15.0	34.5	32.0	16.5	2.0	3.4
관람을 원하는 공연	16.0	31.5	43.5	9.0	0.0	3.5
편의시설	17.0	32.5	37.5	13.0	0.0	3.5
직원태도	30.5	45.5	21.5	2.0	0.5	4.0



○ “부평아트센터는 교통이 편리하다.” (n=200)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5점 평균
전 체		100.0(200)	23.5	41.0	27.5	7.5	0.5	3.8
연령	10대	2.0(4)	75.0	0.0	25.0	0.0	0.0	4.5
	20대	33.0(66)	19.7	43.9	25.8	10.6	0.0	3.7
	30대	35.0(71)	12.7	45.1	36.6	5.6	0.0	3.6
	40대	18.0(36)	33.3	33.3	25.0	5.6	2.8	3.9
	50대	7.0(13)	30.8	46.2	15.4	7.7	0.0	4.0
	60대	4.0(8)	62.5	25.0	0.0	12.5	0.0	4.4
	70대	1.0(2)	50.0	50.0	0.0	0.0	0.0	4.5
거주지 (구)	중구	3.0(6)	0.0	66.7	33.3	0.0	0.0	3.7
	동구	3.0(5)	20.0	80.0	0.0	0.0	0.0	4.2
	남구	10.0(21)	19.0	38.1	33.3	9.5	0.0	3.7
	연수구	5.0(9)	22.2	33.3	44.4	0.0	0.0	3.8
	남동구	8.0(17)	11.8	58.8	29.4	0.0	0.0	3.8
	부평구	55.0(109)	30.3	35.8	24.8	8.3	0.9	3.9
	계양구	7.0(15)	6.7	33.3	40.0	20.0	0.0	3.3
	서구	9.0(18)	22.2	50.0	22.2	5.6	0.0	3.9

○ “부평아트센터의 건물외관은 편안한 느낌을 준다.” (n=200)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5점 평균
전 체		100.0(200)	26.5	55.5	16.0	2.0	0.0	4.1
연령	10대	2.0(4)	50.0	25.0	25.0	0.0	0.0	4.3
	20대	33.0(66)	28.8	54.5	15.2	1.5	0.0	4.1
	30대	35.0(71)	16.9	67.6	15.5	0.0	0.0	4.0
	40대	18.0(36)	25.0	52.8	19.4	2.8	0.0	4.0
	50대	7.0(13)	38.5	30.8	23.1	7.7	0.0	4.0
	60대	4.0(8)	50.0	37.5	0.0	12.5	0.0	4.3
	70대	1.0(2)	100.0	0.0	0.0	0.0	0.0	5.0
거주지 (구)	중구	3.0(6)	33.3	50.0	16.7	0.0	0.0	4.2
	동구	3.0(5)	60.0	40.0	0.0	0.0	0.0	4.6
	남구	10.0(21)	23.8	61.9	9.5	4.8	0.0	4.0
	연수구	5.0(9)	55.6	33.3	11.1	0.0	0.0	4.4
	남동구	8.0(17)	29.4	58.8	11.8	0.0	0.0	4.2
	부평구	55.0(109)	22.9	56.0	18.3	2.8	0.0	4.0
	계양구	7.0(15)	13.3	53.3	33.3	0.0	0.0	3.8
	서구	9.0(18)	33.3	61.1	5.6	0.0	0.0	4.3

○ “부평아트센터는 안내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n=200)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5점 평균
전 체		100.0(200)	15.5	41.5	34.5	8.0	0.5	3.6
연령	10대	2.0(4)	0.0	75.0	25.0	0.0	0.0	4.5
	20대	33.0(66)	15.2	40.9	36.4	6.1	1.5	3.9
	30대	35.0(71)	16.9	46.5	28.2	8.5	0.0	4.0
	40대	18.0(36)	13.9	38.9	38.9	8.3	0.0	3.8
	50대	7.0(13)	30.8	7.7	46.2	15.4	0.0	3.3
	60대	4.0(8)	0.0	37.5	50.0	12.5	0.0	3.6
	70대	1.0(2)	0.0	100.0	0.0	0.0	0.0	5.0
거주지 (구)	중구	3.0(6)	50.0	50.0	0.0	0.0	0.0	4.5
	동구	3.0(5)	40.0	40.0	20.0	0.0	0.0	4.2
	남구	10.0(21)	19.0	38.1	33.3	9.5	0.0	3.9
	연수구	5.0(9)	44.4	33.3	22.2	0.0	0.0	4.1
	남동구	8.0(17)	11.8	58.8	17.6	11.8	0.0	4.2
	부평구	55.0(109)	9.2	39.4	41.3	9.2	0.9	3.8
	계양구	7.0(15)	13.3	33.3	46.7	6.7	0.0	3.7
	서구	9.0(18)	22.2	50.0	22.2	5.6	0.0	4.2

○ “부평아트센터의 공연 및 전시 수준은 적절하다.” (n=200)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5점 평균
전 체		100.0(200)	14.0	50.5	29.0	6.0	0.5	3.7
연령	10대	2.0(4)	25.0	50.0	25.0	0.0	0.0	4.0
	20대	33.0(66)	19.7	56.1	22.7	1.5	0.0	3.9
	30대	35.0(71)	9.9	62.0	23.9	4.2	0.0	3.8
	40대	18.0(36)	8.3	38.9	38.9	11.1	2.8	3.4
	50대	7.0(13)	23.1	15.4	38.5	23.1	0.0	3.4
	60대	4.0(8)	0.0	25.0	62.5	12.5	0.0	3.1
	70대	1.0(2)	50.0	0.0	50.0	0.0	0.0	4.0
거주지 (구)	중구	3.0(6)	50.0	50.0	0.0	0.0	0.0	4.5
	동구	3.0(5)	40.0	60.0	0.0	0.0	0.0	4.4
	남구	10.0(21)	9.5	61.9	23.8	4.8	0.0	3.8
	연수구	5.0(9)	33.3	44.4	22.2	0.0	0.0	4.1
	남동구	8.0(17)	17.6	64.7	17.6	0.0	0.0	4.0
	부평구	55.0(109)	8.3	44.0	37.6	9.2	0.9	3.5
	계양구	7.0(15)	13.3	60.0	26.7	0.0	0.0	3.9
	서구	9.0(18)	22.2	55.6	16.7	5.6	0.0	3.9

○ “부평아트센터의 공연 및 전시 시간은 나의 여가시간과 잘 맞는다.” (n=200)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5점 평균
전 체		100.0(200)	23.5	41.0	27.5	7.5	0.5	3.6
연령	10대	2.0(4)	25.0	25.0	50.0	0.0	0.0	3.8
	20대	33.0(66)	18.2	40.9	33.3	7.6	0.0	3.7
	30대	35.0(71)	8.5	50.7	32.4	8.5	0.0	3.6
	40대	18.0(36)	11.1	41.7	41.7	2.8	2.8	3.6
	50대	7.0(13)	15.4	30.8	30.8	23.1	0.0	3.4
	60대	4.0(8)	12.5	25.0	50.0	12.5	0.0	3.4
	70대	1.0(2)	0.0	0.0	100.0	0.0	0.0	3.0
거주지 (구)	중구	3.0(6)	33.3	50.0	16.7	0.0	0.0	4.2
	동구	3.0(5)	60.0	40.0	0.0	0.0	0.0	4.6
	남구	10.0(21)	23.8	42.9	28.6	4.8	0.0	3.9
	연수구	5.0(9)	44.4	22.2	33.3	0.0	0.0	4.1
	남동구	8.0(17)	5.9%	52.9	35.3	5.9	0.0	3.6
	부평구	55.0(109)	6.4	38.5	42.2	11.9	0.9	3.4
	계양구	7.0(15)	6.7	60.0	33.3	0.0	0.0	3.7
	서구	9.0(18)	16.7	50.0	27.8	5.6	0.0	3.8

○ “부평아트센터의 관람료는 적절하다.” (n=200)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5점 평균
전 체		100.0(200)	12.5	38.5	40.0	7.5	1.5	3.5
연령	10대	2.0(4)	25.0	25.0	50.0	0.0	0.0	3.8
	20대	33.0(66)	16.7	37.9	40.9	4.5	0.0	3.7
	30대	35.0(71)	11.3	40.8	36.6	7.0	4.2	3.5
	40대	18.0(36)	5.6	38.9	44.4	11.1	0.0	3.4
	50대	7.0(13)	23.1	23.1	38.5	15.4	0.0	3.5
	60대	4.0(8)	0.0	50.0	37.5	12.5	0.0	3.4
	70대	1.0(2)	0.0	50.0	50.0	0.0	0.0	3.5
거주지 (구)	중구	3.0(6)	33.3	33.3	33.3	0.0	0.0	4.0
	동구	3.0(5)	40.0	60.0	0.0	0.0	0.0	4.4
	남구	10.0(21)	19.0	19.0	47.6	9.5	4.8	3.4
	연수구	5.0(9)	44.4	11.1	22.2	22.2	0.0	3.8
	남동구	8.0(17)	11.8	41.2	47.1	0.0	0.0	3.6
	부평구	55.0(109)	4.6	45.0	40.4	10.1	0.0	3.4
	계양구	7.0(15)	6.7	40.0	53.3	0.0	0.0	3.5
	서구	9.0(18)	27.8	27.8	33.3	0.0	0.0	3.6

○ “부평아트센터의 공연 및 전시 관련정보는 손쉽게 얻을 수 있다.” (n=200)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5점 평균
전 체		100.0(200)	15.0	34.5	32.0	16.5	2.0	3.4
연령	10대	2.0(4)	50.0	0.0	25.0	25.0	0.0	3.8
	20대	33.0(66)	13.6	34.8	28.8	18.2	4.5	3.3
	30대	35.0(71)	15.5	38.0	33.8	11.3	1.4	3.5
	40대	18.0(36)	8.3	36.1	33.3	22.2	0.0	3.3
	50대	7.0(13)	30.8	7.7	38.5	23.1	0.0	3.5
	60대	4.0(8)	12.5	37.5	37.5	12.5	0.0	3.5
	70대	1.0(2)	0.0	100.0	0.0	0.0	0.0	4.0
거주지 (구)	중구	3.0(6)	33.3	33.3	16.7	16.7	0.0	3.8
	동구	3.0(5)	40.0	60.0	0.0	0.0	0.0	4.4
	남구	10.0(21)	28.6	14.3	23.8	23.8	9.5	3.3
	연수구	5.0(9)	33.3	22.2	33.3	11.1	0.0	3.8
	남동구	8.0(17)	5.9	47.1	41.2	5.9	0.0	3.5
	부평구	55.0(109)	11.0	36.7	32.1	18.3	1.8	3.4
	계양구	7.0(15)	0.0	33.3	53.3	13.3	0.0	3.2
	서구	9.0(18)	22.2	33.3	27.8	16.7	0.0	3.6

○ “부평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공연 및 전시 중 관람하고 싶은 것이 많다.” (n=200)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5점 평균
전 체		100.0(200)	16.0	31.5	43.5	9.0	0.0	3.5
연령	10대	2.0(4)	50.0	0.0	50.0	0.0	0.0	4.0
	20대	33.0(66)	15.2	24.2	51.5	9.1	0.0	3.5
	30대	35.0(71)	15.5	42.3	40.8	1.4	0.0	3.7
	40대	18.0(36)	11.1	33.3	38.9	16.7	0.0	3.4
	50대	7.0(13)	30.8	7.7	30.8	30.8	0.0	3.4
	60대	4.0(8)	12.5	37.5	37.5	12.5	0.0	3.5
	70대	1.0(2)	0.0	50.0	50.0	0.0	0.0	3.5
거주지 (구)	중구	3.0(6)	50.0	33.3	16.7	0.0	0.0	4.3
	동구	3.0(5)	60.0	40.0	0.0	0.0	0.0	4.6
	남구	10.0(21)	28.6	19.0	38.1	14.3	0.0	3.6
	연수구	5.0(9)	22.2	44.4	33.3	0.0	0.0	3.9
	남동구	8.0(17)	5.9	47.1	41.2	5.9	0.0	3.5
	부평구	55.0(109)	10.1	30.3	48.6	11.0	0.0	3.4
	계양구	7.0(15)	6.7	46.7	40.0	6.7	0.0	3.5
	서구	9.0(18)	27.8	16.7	50.0	5.6	0.0	3.7

○ “부평아트센터는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n=200)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5점 평균
전 체		100.0(200)	17.0	32.5	37.5	13.0	0.0	3.5
연령	10대	2.0(4)	0.0	0.0	100.0	0.0	0.0	3.0
	20대	33.0(66)	19.7	40.9	30.3	9.1	0.0	3.7
	30대	35.0(71)	16.9	26.8	43.7	12.7	0.0	3.5
	40대	18.0(36)	8.3	33.3	33.3	25.0	0.0	3.3
	50대	7.0(13)	30.8	7.7	46.2	15.4	0.0	3.5
	60대	4.0(8)	25.0	50.0	25.0	0.0	0.0	4.0
	70대	1.0(2)	0.0	100.0	0.0	0.0	0.0	4.0
거주지 (구)	중구	3.0(6)	50.0	0.0	33.3	16.7	0.0	3.8
	동구	3.0(5)	40.0	40.0	20.0	0.0	0.0	4.2
	남구	10.0(21)	28.6	38.1	28.6	4.8	0.0	3.9
	연수구	5.0(9)	44.4	22.2	33.3	0.0	0.0	4.1
	남동구	8.0(17)	11.8	41.2	29.4	17.6	0.0	3.5
	부평구	55.0(109)	11.9	33.0	38.5	16.5	0.0	3.4
	계양구	7.0(15)	6.7	33.3	53.3	6.7	0.0	3.4
	서구	9.0(18)	16.7	27.8	44.4	11.1	0.0	3.5

○ “부평아트센터는 직원들의 태도가 친절하다.” (n=200)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5점 평균
전 체		100.0(200)	30.5	45.5	21.5	2.0	0.5	4.0
연령	10대	2.0(4)	25.0	0.0	75.0	0.0	0.0	3.5
	20대	33.0(66)	34.8	48.5	16.7	0.0	0.0	4.2
	30대	35.0(71)	29.6	52.1	16.9	1.4	0.0	4.1
	40대	18.0(36)	19.4	41.7	36.1	0.0	2.8	3.8
	50대	7.0(13)	30.8	23.1	23.1	23.1	0.0	3.6
	60대	4.0(8)	50.0	37.5	12.5	0.0	0.0	4.4
	70대	1.0(2)	50.0	50.0	0.0	0.0	0.0	4.5
거주지 (구)	중구	3.0(6)	50.0	33.3	16.7	0.0	0.0	4.3
	동구	3.0(5)	60.0	40.0	0.0	0.0	0.0	4.6
	남구	10.0(21)	38.1	52.4	9.5	0.0	0.0	4.3
	연수구	5.0(9)	44.4	44.4	11.1	0.0	0.0	4.3
	남동구	8.0(17)	35.3	41.2	17.6	0.0	5.9	4.0
	부평구	55.0(109)	23.9	46.8	25.7	3.7	0.0	3.9
	계양구	7.0(15)	26.7	53.3	20.0	0.0	0.0	4.1
	서구	9.0(18)	38.9	33.3	27.8	0.0	0.0	4.1

IDI연구보고서 2013-13

인천광역시 문예회관의 문화공공성 제고방안 연구

발 행 인 김 민 배
발 행 일 2013년 9월

발 행 처 인천발전연구원
404-190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TEL 032) 260-2600
FAX 032) 260-2629
http://www.idi.re.kr

인 쇄 소 032디자인(주) (032-777-7032)

ⓒ 인천발전연구원 2013

ISBN 978-89-5678-468-7 9360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인천발전연구원의 공식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